

# 2021 GIST 연구환경 실태조사

GIST 대학원총학생회

# 연구활동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GIST 대학원의 연구환경을 파악하여, 내부 환경 개선 및 대정부 정책 제안의 근거 마련에 활용.
조사방식	Google 문서도구 양식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1.12.08 – 2021.12.21
설문대상	GIST 대학원생
응답자수	189명
설문주최	GIST 대학원총학생회

# 목 차

1 [인적사항](#)

2 [경제적 환경](#)

3 [연구실 복지](#)

4 [연구실 안전](#)

5 [연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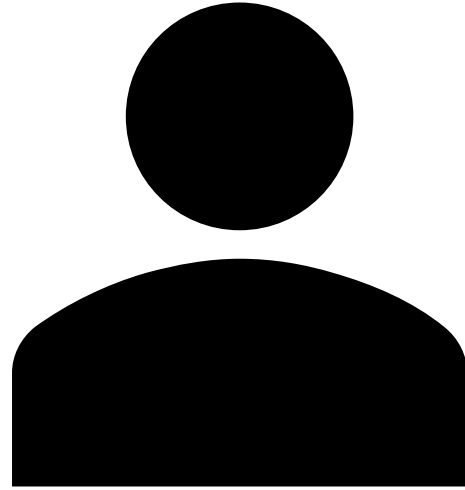
6 [졸업 및 진로](#)

7 [인권 문제](#)

8 [대학원 진학 이유](#)

9 [코로나-19 대응](#)

10 [기타 사항](#)



# 1. 인적사항

성별, 나이, 학위과정 등 응답자의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 응답자 인적사항

## 1. 성별

## 2.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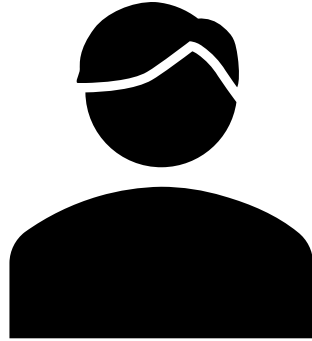
## 3. 학위과정

## 4. 재학기간

## 5. 전문연구요원

## 6. 결혼여부

남



122명  
(65%)

석사과정 —●———— 25%

박사과정 —●———— 35%

통합과정 —●———— 40%

여



67명  
(35%)

석사과정 —●———— 34%

박사과정 —●———— 45%

통합과정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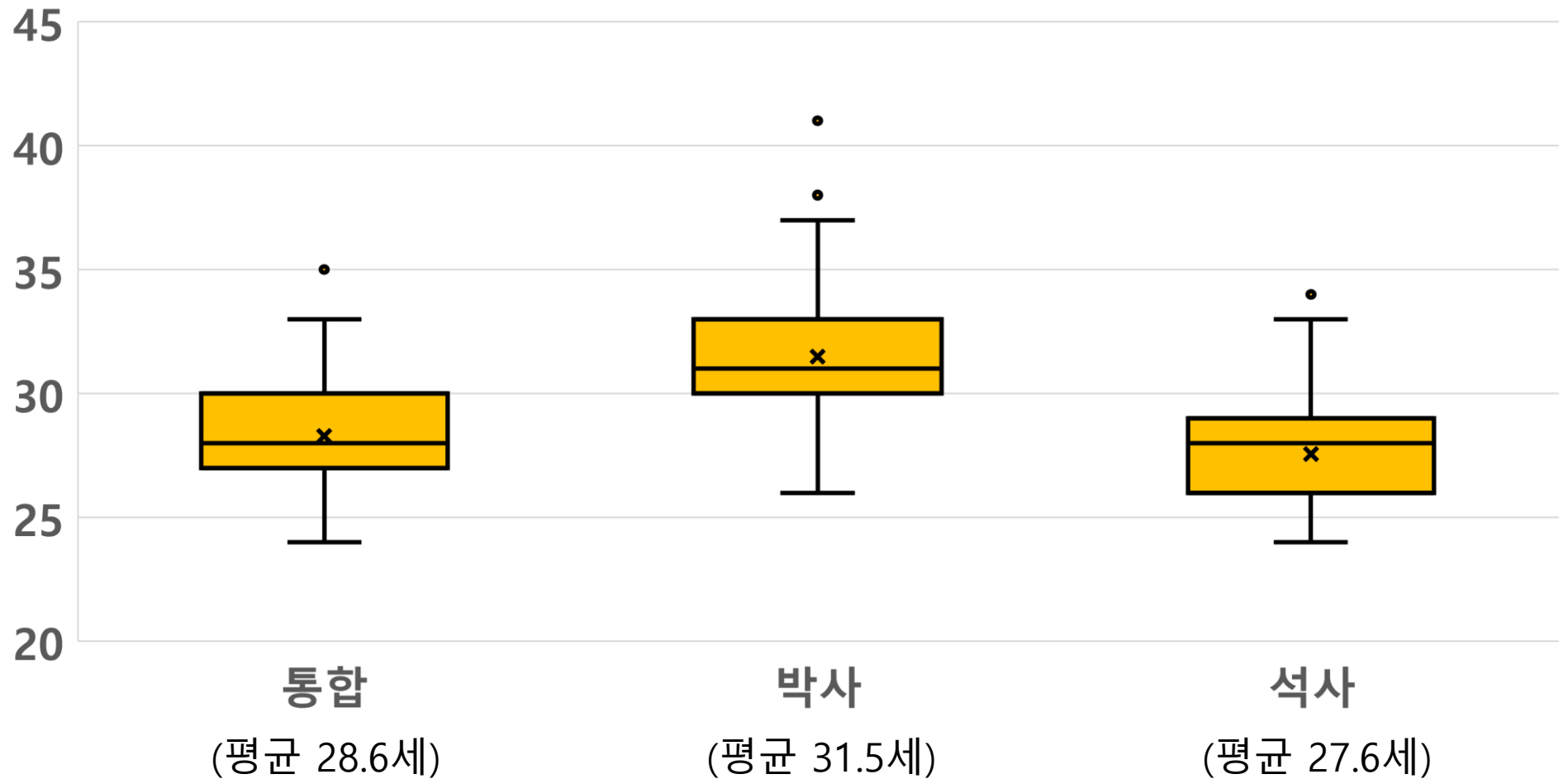


##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학위과정
4. 재학기간
5. 전문연구요원
6. 결혼여부

# 학위과정에 따른 나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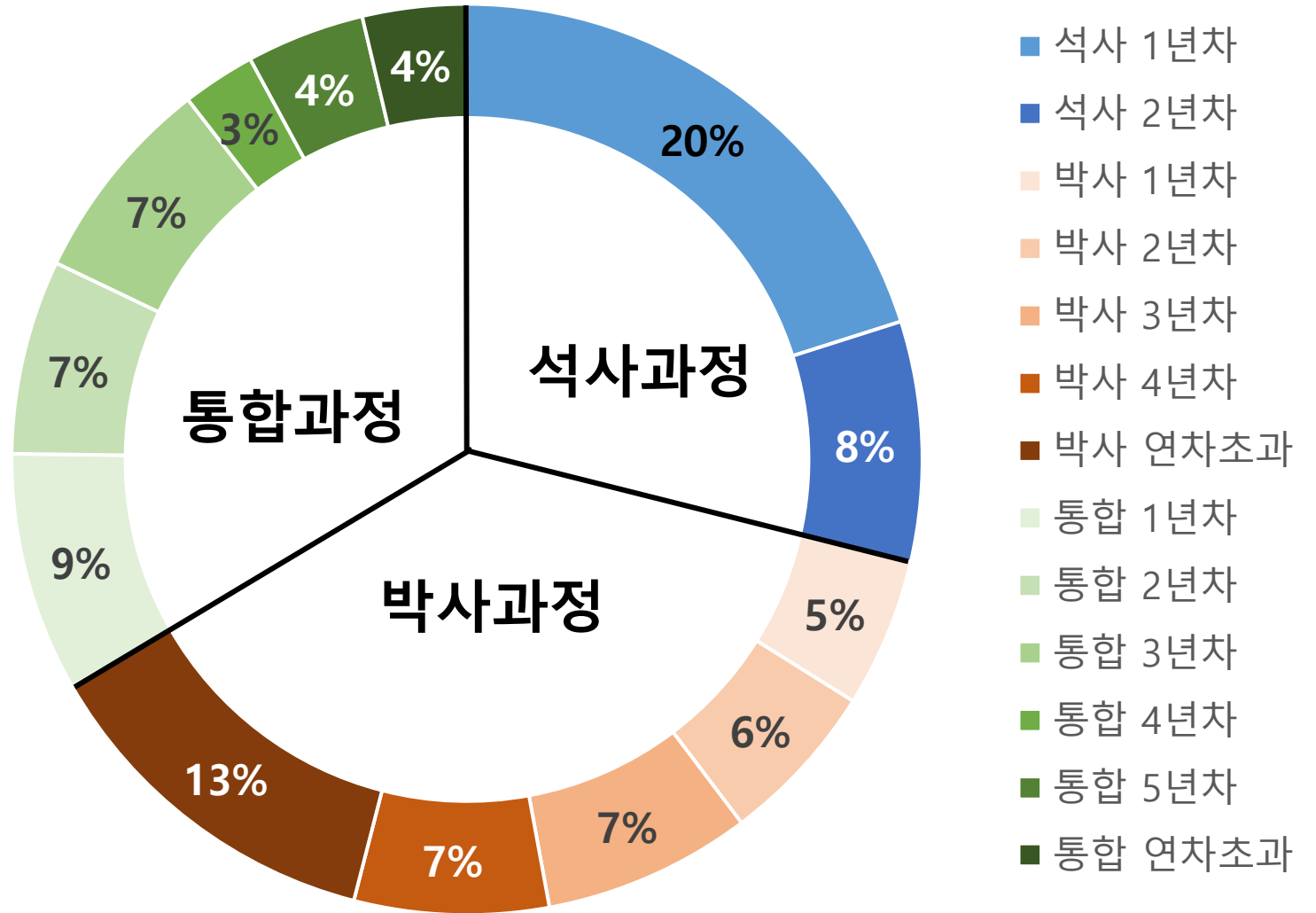
(전체 평균 나이: 29.3세)



##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학위과정
4. 재학기간
5. 전문연구요원
6. 결혼여부

## 응답자 학위과정 및 연차



1. 성별
2. 나이
3. 학위과정
4. 재학기간
5. 전문연구요원
6. 결혼여부

## 응답자 학위과정 및 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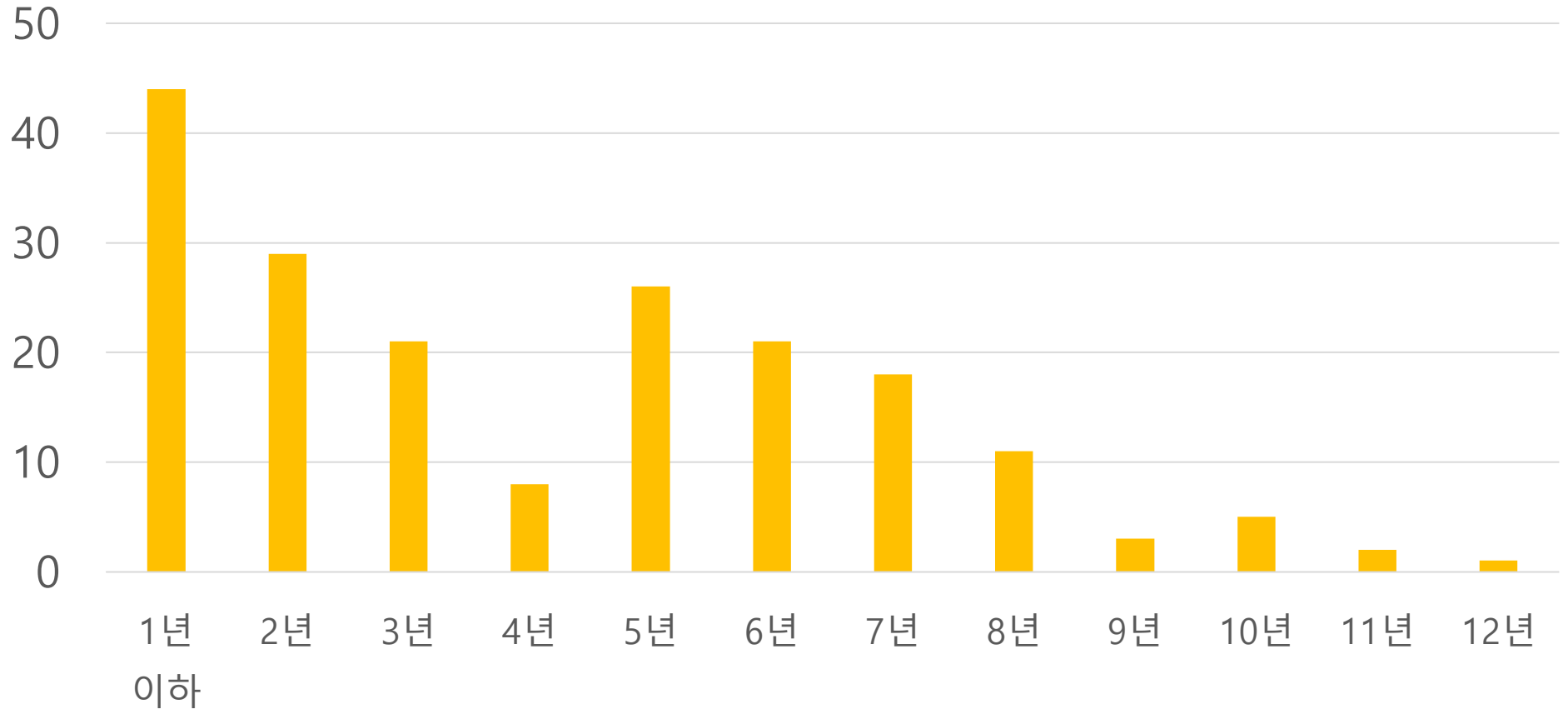
과정	연차	인원 (명)	퍼센트 (%)
석사과정	1년차	38	20.1
	2년차	16	8.5
	연차초과	10	5.3
박사과정	1년차	10	5.3
	2년차	11	5.8
	3년차	14	7.4
	4년차	13	6.9
	연차초과	24	12.7
통합과정	1년차	16	8.5
	2년차	13	6.9
	3년차	14	7.4
	4년차	5	2.6
	5년차	8	4.2
	6년차	1	0.5
	연차초과	6	3.2
전체		189	100



##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학위과정
- 4. 재학기간**
5. 전문연구요원
6. 결혼여부

## 재학기간 (학부, 대학원 과정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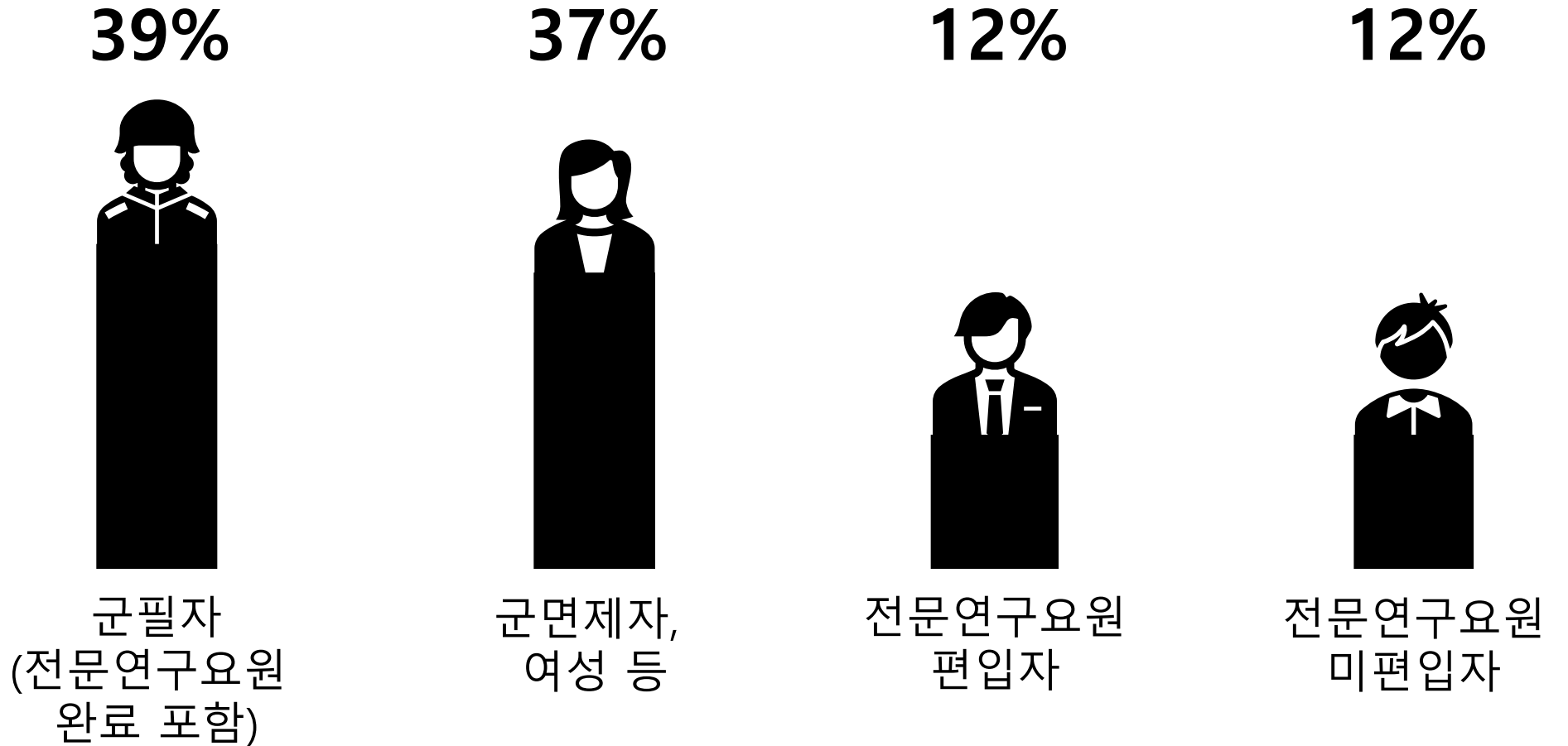


전체 평균 재학 기간 4.1년

# 응답자 인적사항

- 1. 성별
- 2. 나이
- 3. 학위과정
- 4. 재학기간
- 5. 전문연구요원
- 6. 결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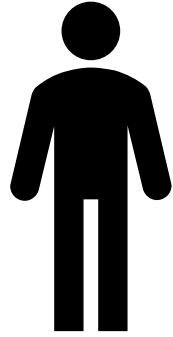
## 전문연구요원 편입여부



#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학위과정
4. 재학기간
5. 전문연구요원
6. 결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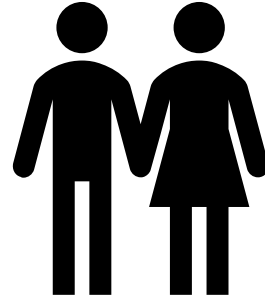
## 결혼 및 자녀여부



미혼  
자녀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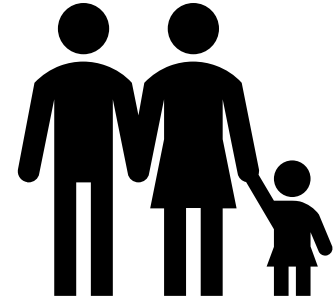
170명  
(89.9%)



기혼  
자녀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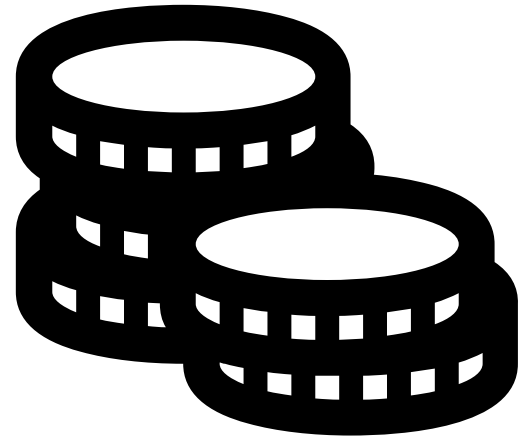
14명  
(7.4%)



미혼  
자녀 있음

---

5명  
(2.7%)



## 2.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들의 수입 및 지출 분석에 관한 항목입니다.

- 학위과정 별 월 평균 전체 수입  
(만원 단위 국비보조비 포함, 생활관비 공제 전 금액, 세전 금액)

## 1. 생활비

2. 지출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구 분	최 소	최 대	중 위 값	산술 평균
석사과정	11.4	134	73.9	79.2
박사과정	0	280	130	143
통합과정	60	270	120	123.4
전 체	0	280	110	118.2

## 1. 생활비

## 2. 지출

## 3. 생활 만족도

## 4. 생활비 보충

### • 전공 별 월 평균 전체 수입

(만원 단위 국비보조비 포함, 생활관비 공제 전 금액, 세전 금액)

학부(과)	최소	최대	중위값	산술평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50	220	113	120.5
신소재공학부	60	220	105	104.3
<b>융합기술원</b> <b>(융합기술학제학부, 에너지융합대학원</b>	<b>70</b>	<b>250</b>	<b>180</b>	<b>163.6</b>
<b>및 에너지융합학제전공 포함)</b>				
지구환경공학부	75	270	134	140.2
생명과학부	0	200	110	110
<b>화학과</b>	<b>53</b>	<b>150</b>	<b>100</b>	<b>100</b>
기계공학부	11.4	250	82	100.5
물리광학과	84	160	120	120.5
의생명공학과	60	270	98.5	106.5
AI대학원	70	280	115	143.5
<b>전체</b>	<b>0</b>	<b>110</b>	<b>110</b>	<b>118.2</b>

# 경제적 환경

1. 생활비

2. 지출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 항목별 생활비 평균 지출

생활관 (해당자만, 68.8%)		87,000원
기혼자아파트 (해당자만, 5.8%)		175,000원
교외 주거 (해당자만, 25.4%)		316,000원
식비		480,000원
교통비		102,000원
통신비		63,000원
기타지출 (보험 등)		182,000원

# 경제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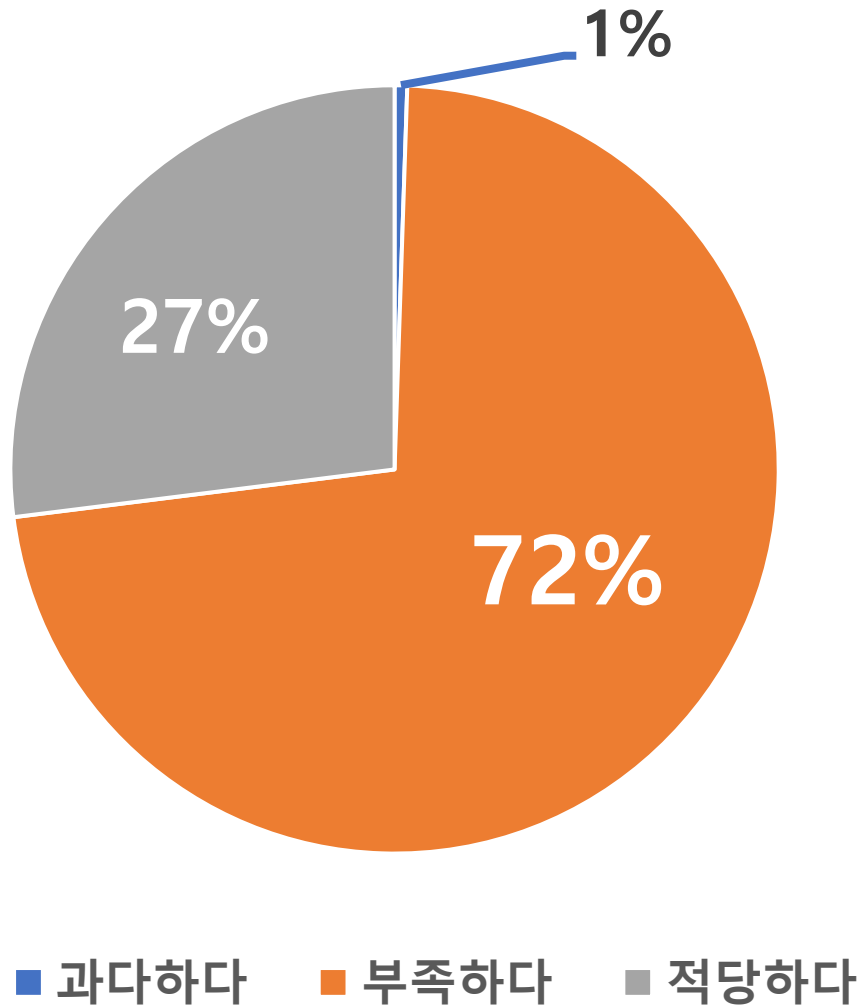
1. 생활비

2.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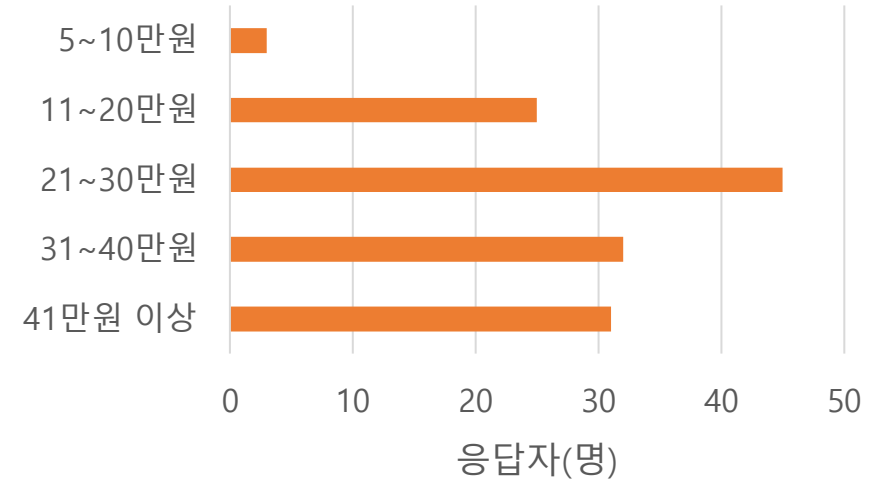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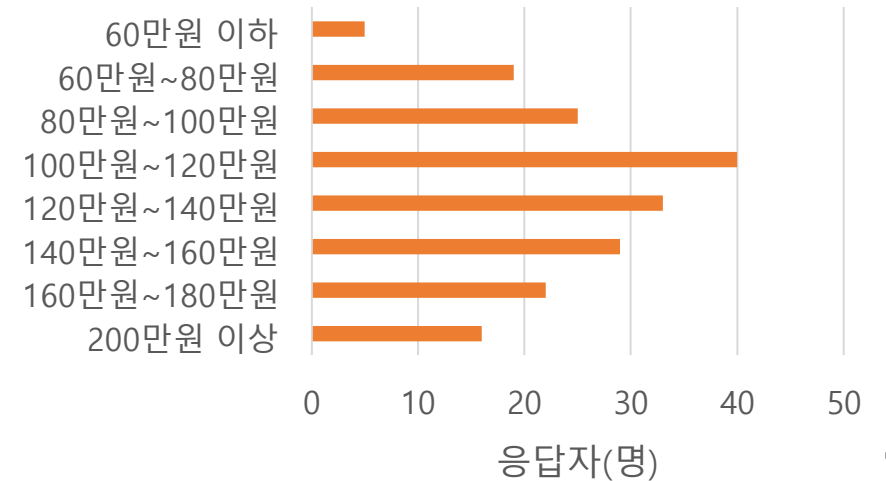
## • 현재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



## • 부족한 금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 • 대학원생에게 적절한 생활비는? (기숙사비 제외 순수 생활비)





# 경제적 환경

## • 부족한 생활비 보충 방법

1. 생활비

2. 지출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부족하지 않음

29.6%  
(56명 응답)



조교 활동

5.3%  
(1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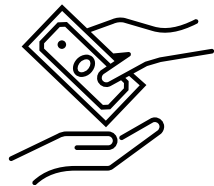
개인 과외

1.6%  
(3명 응답)



아르바이트

0.5%  
(1명 응답)



부모님 도움, 용돈

17.5%  
(33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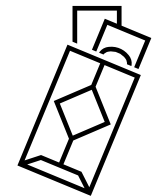
대출

5.8%  
(11명 응답)



미리 저축한 예금

38.6%  
(73명 응답)



방법 없음

1.1%  
(2명 응답)

## 인건비, 생활비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문제 없음,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학부과목 조교 등 부수입에 해당하는 만큼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지급함.  
스타이펜드 기준 자체가 현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최하위층 (1순위)에도 미달됨.
- 통합과정 2년 차를 박사로 인정하지 않고 석사 2년 차 인건비를 지급
- 학부생 조교를 했을 때 장학금 삭감
- 인건비 풀링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 스타이펜드는 연차초과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수가 안 줘서 40만원 받는 박사과정학생 봤음
- 스타이펜드 생기기 전부터 다녀서 사실 잘 모릅니다. 옛날에 안 좋은 사례로는 본인 이직한다고 연구실 과제가 없다며 과제 인건비를 5~10만원 주는 경우 혹은 연구실 과제가 없다고 15만원 주는 경우 봤습니다.
- 신소재 스타이펜드만 주는데 그 돈으로 학식만 먹어야 합니까?
- 교수님과의 불화로 최저금액 이하의 금액을 받음(융합기술학제학부)
- 연차초과자 중 국가보조비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스타이펜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받던 사람 봄
- 조교수당만큼 빼고 스타이펜드 기준에 맞춰 지급.
- 스타이펜드 기준자체가 너무 낮지 않나 합니다.



### 3. 연구실 복지

연구환경과 휴가, 스트레스 등 대학원생 연구실 복지에 관한 항목입니다.

## 1. 연구 환경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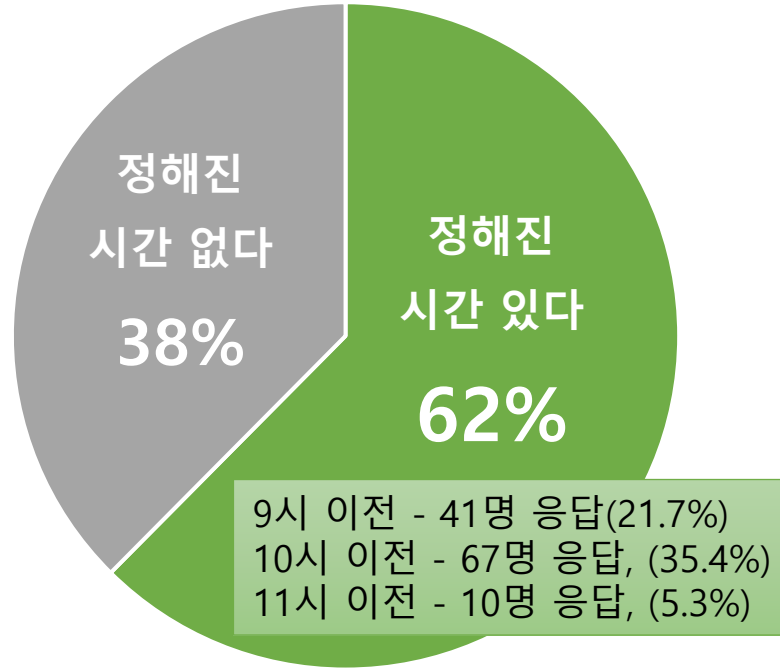
3. 스트레스

4.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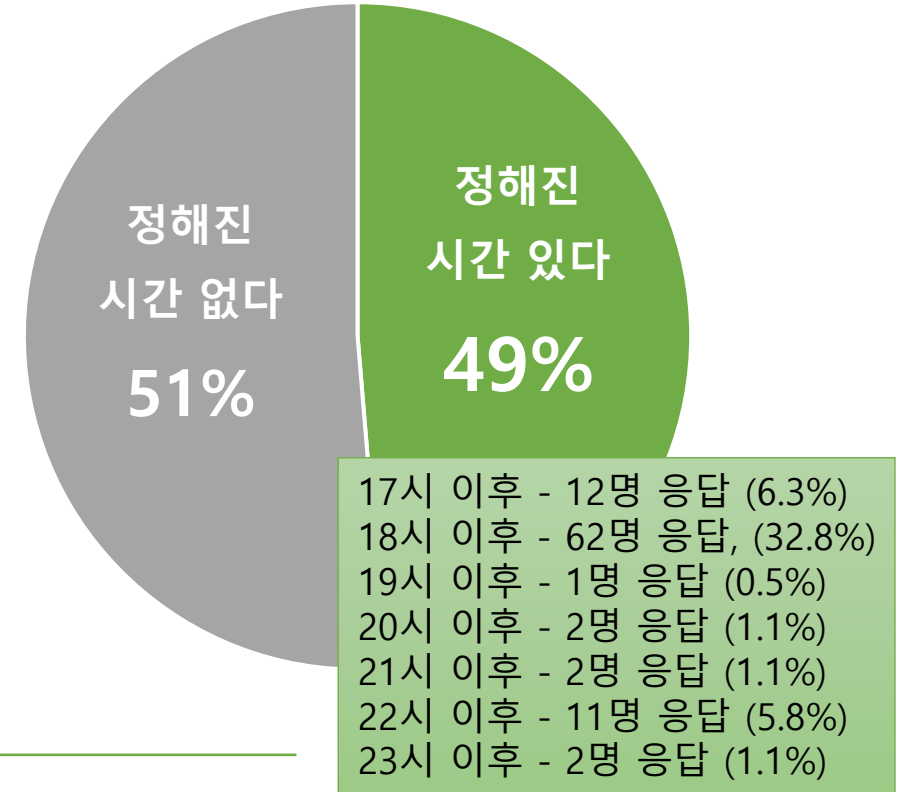
5. 연구 참여

6. 연구 행정

### • 연구실 입실 시간



### • 연구실 퇴근 시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평일 연구 시간  
(응답자의 58%가 9시간 이하라고 응답)

**9시간 이하**

실제 평일 (주중) 일 평균 근무 시간

**10.1시간**

실제 주말 일 평균 근무 시간  
(응답자의 142명 대상)

**5.0시간**

1. 연구 환경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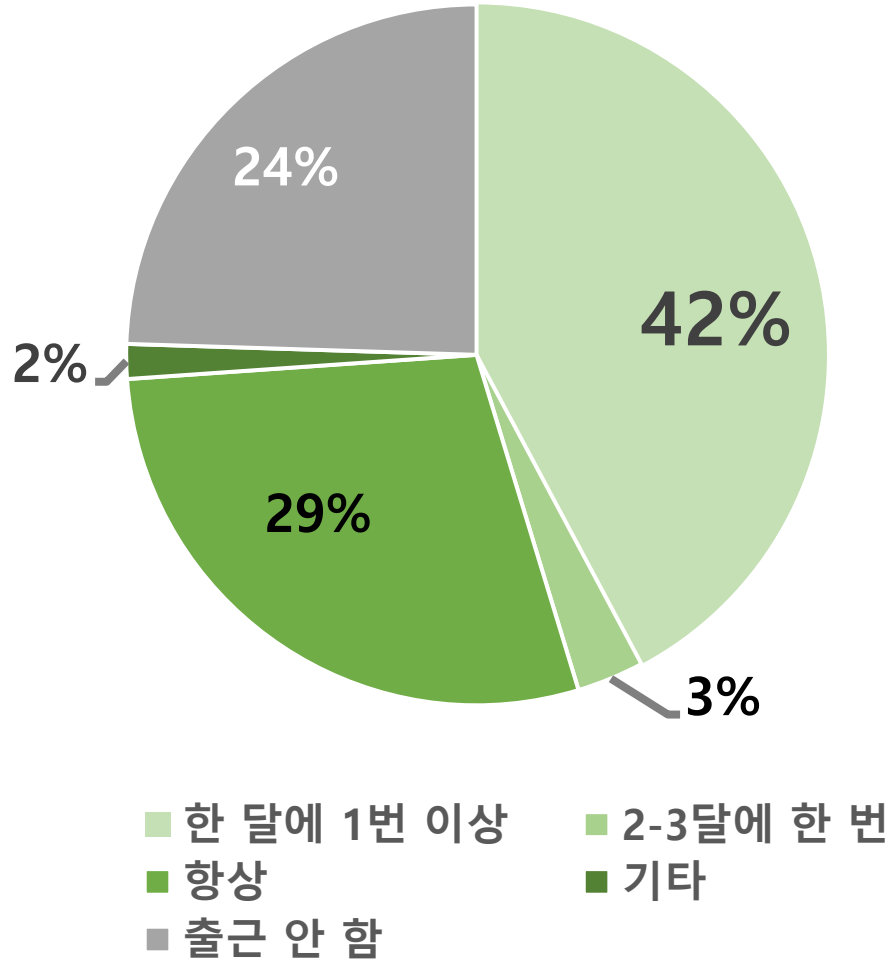
3. 스트레스

4. 건강검진

5. 연구 참여

6. 연구 행정

• 현재 주말에 출근은 하고 있습니까?



출근 안 함 (24%) < 출근함 (76%)

• 주말에 출근하는 이유?  
(응답자 142명 대상)

구분	비율 (%)
의무적 (반드시 참여해야 함)	5.6
<b>자율적</b>	<b>81.7</b>
분위기 상 눈치가 보여서	7.3
기타 (업무 과다)	1.6

기타 연구실 입실/퇴실 시간에 관한 제한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 없음,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본인 일정에 따라 자유 입실 및 퇴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4명)**
- **출퇴근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거의 12시간 정도는 랩실에 있어야 하는 분위기 (5명)**
- 제한은 없지만 교수님이 밤 10시에 연구실에 오심
- 토요일 근무함(10시부터 18시)
- 이 사안은 전적으로 연구실 별로 정해야 한다. 천 편 일률적으로 정하면 연구실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 6시 이후 운동은 가능
- 식사 시간 제한(1시간)
- 끈대들의 강압적인 눈치 (없다고 하지만 강요함)
- 모든 일을 끝날 때까지 일해야 한다
- 퇴직한 A 교수 연구실은 9시 출퇴근 출결을 어플로 관리하였다고 들었다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대해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 없음,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인건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초과 수당이 더 필요하다) (6명)
- 의무적으로 주말 보장 및 건강 확보 보장 필요 (5명)
- 일과 자기 시간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연구 외적인 행정 및 관리 업무가 많음) (4명)
- 교수님의 인권 유린, 적은 월급(타 대학 보단 낮겠지만), 낮은 자존감. 학업에 대한 열정보다 교수님의 언어 폭력과 비언어 폭력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3명)
-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2명)
- 결국은 자기 연구이고 자기 커리어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교수님과 협의 하에 환경을 맞추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기준을 가지면 일반화의 오류로 여겨지는 부분인 거 같아요. (2명)
- 방학 중이 아닐 때도 연차(혹은 휴가) 사용
- 연구에 필요한 전용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있어 자비로 구매하여 쓰는 상황입니다.
- 연구실 공간을 산출할 때, 교수님 당 X (m<sup>2</sup>)가 아니라 '대학원생 인원수×Y(m<sup>2</sup>)'로 계산하여 제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연구실 복지

1. 연구 환경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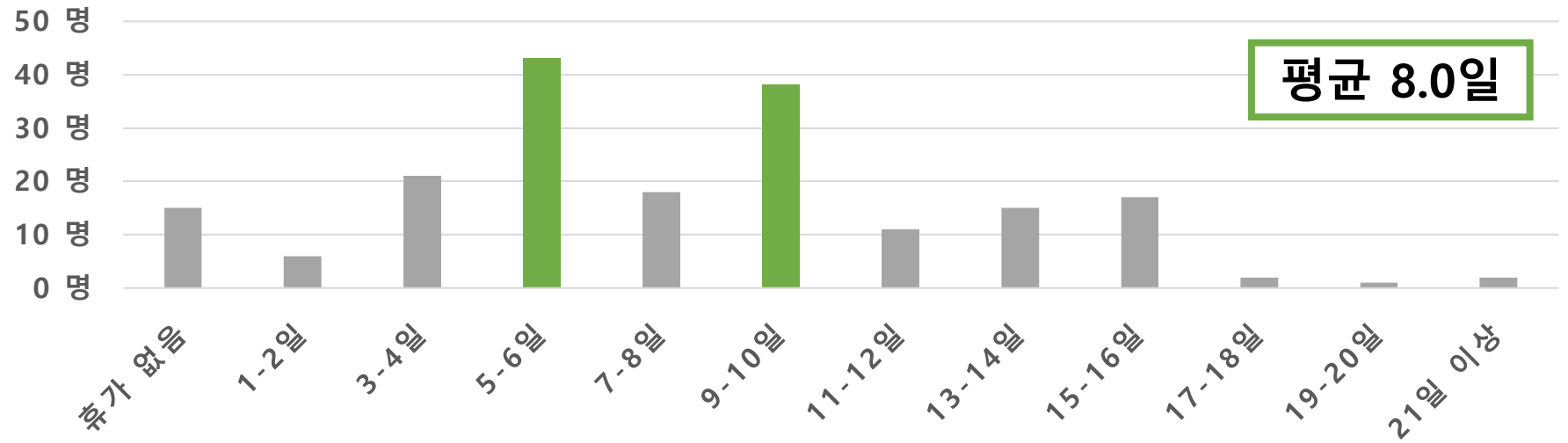
3. 스트레스

4.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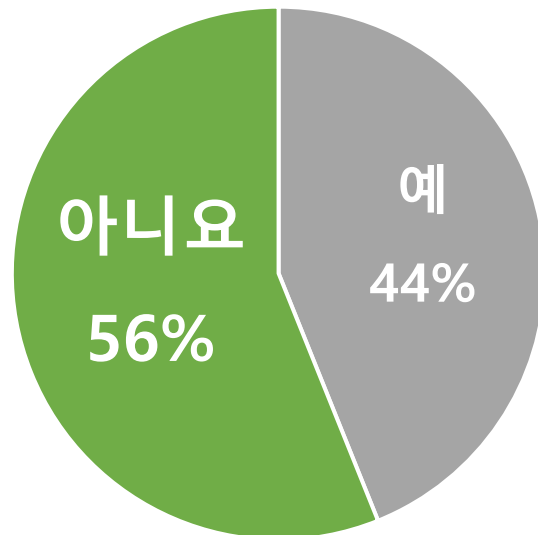
5. 연구 참여

6. 연구 행정

## • 휴가는 1 년에 몇일 사용하고 있나요?



## • 현재 휴가 일 수에 만족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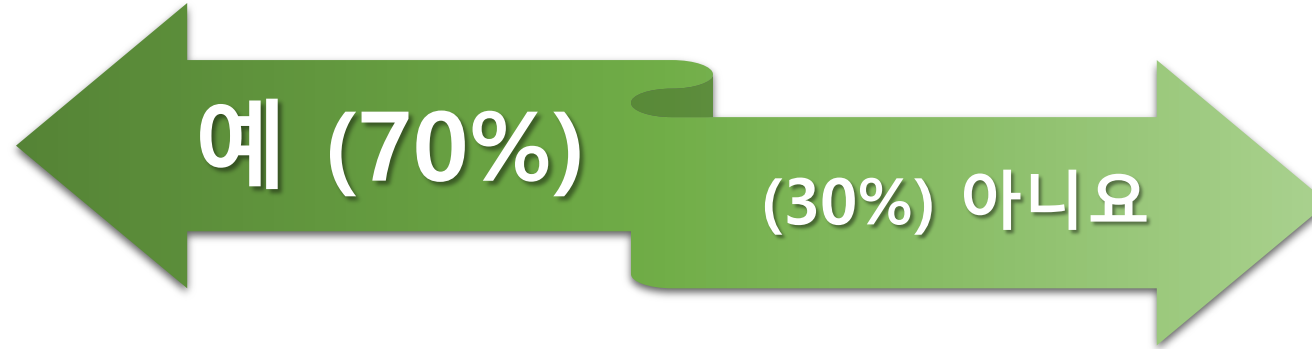
## • 희망하는 휴가 일 수는?

평균 15 일

휴가 없다 응답자: 15명 (7.9%)



- 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휴가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74명 대상)



- 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응답한 58명 대상)

항목	비율 (%)
교수님 눈치가 보여서	31
지정된 날짜에만 사용 가능	29
다른 사람들과 휴가 일정 중복 불가	21
갑작스런 휴가 날짜 통지	5
성과가 있어야만 휴가를 갈 수 있음	3
기타	11

1. 연구 환경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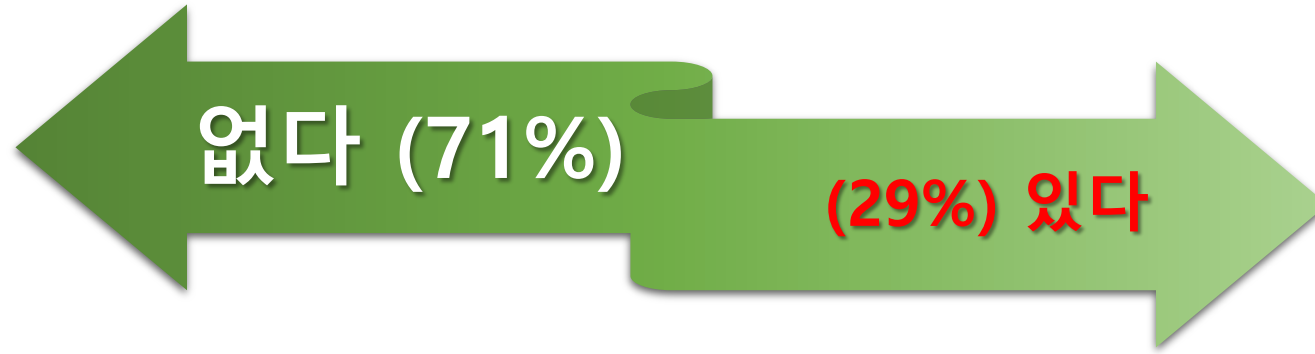
3. 스트레스

4. 건강검진

5. 연구 참여

6. 연구 행정

- 휴가 중에 업무 지시가 있습니까?



- 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응답한 58명 대상, 중복 응답 포함)

항 목	비율 (%)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메일로 연락 (26회 응답)	21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함 (27회 응답)	22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제안서 작성 (24회 응답)	19.6
논문 및 리뷰 작성 또는 수정 (18회 응답)	14.7
과제 진행사항 체크 (16회 응답)	13
발표자료 작성 (9회 응답)	7
기타 (2회 응답)	1.6

1. 연구 환경

2. 휴가

3. 스트레스

4. 건강검진

5. 연구 참여

6. 연구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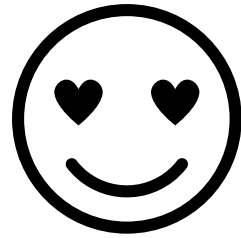
휴가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휴가 일수 권고가 아닌 최소 휴가 일수 보장 / 의무화 제도 도입 및 불이행시 제재 조치가 필요함 (32명)
- 학교에서 학생 휴가 관련 규정을 정한 후 휴가 사용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2명)
- 교수님 인식 개선 필요 (4명) / 교수 재량이라는 조항 불필요 (3명)
- 휴가를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포탈 시스템 활용)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9명)
-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 (6명)
- 연구실 내 필수 인력 잔류
- 모든 연구실이 휴가 일수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직장인이 아닌데 휴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에게 "휴가"라는 것이 있나요?
- 솔직히 학생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가를 쓰는게 애매합니다. 일이 항상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휴가 일수를 꼭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휴식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휴가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 연차처럼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복지를 해주면 좋겠다.

# 연구실 복지

- 1. 연구 환경
- 2. 휴가
- 3. 스트레스
- 4. 건강검진
- 5. 연구 참여
- 6. 연구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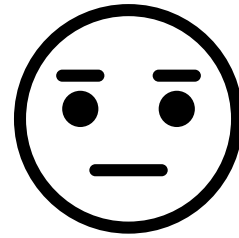
• 연구실 생활로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 **3.33** 점 / 5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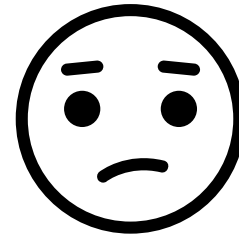
1점  
5%



2점  
13%



3점  
33%



4점  
35%



5점  
14%

• 스트레스의 원인 (복수 응답)


구 분	비율(%)
연구진행에서의 어려움	39
과도한 업무	15
교수님과의 관계	11
연구실 사람들과의 관계	13
가족/연애 등 개인적인 이유	3
금전적인 이유	17
기타	2

• 스트레스 해소방법 (복수 응답)

구 분	비율(%)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 (운동, 게임 등)	67
친구 및 선후배들과의 시간을 가짐 (스포츠, 게임, 술자리 등)	22
상담센터를 이용	2
지도교수님과 상담	5
기타	4

- 1. 연구 환경
- 2. 휴가
- 3. 스트레스
- 4. 건강검진
- 5. 연구 참여
- 6. 연구 행정

## • 스트레스 해소의 제약 요소

시간의 여유가 부족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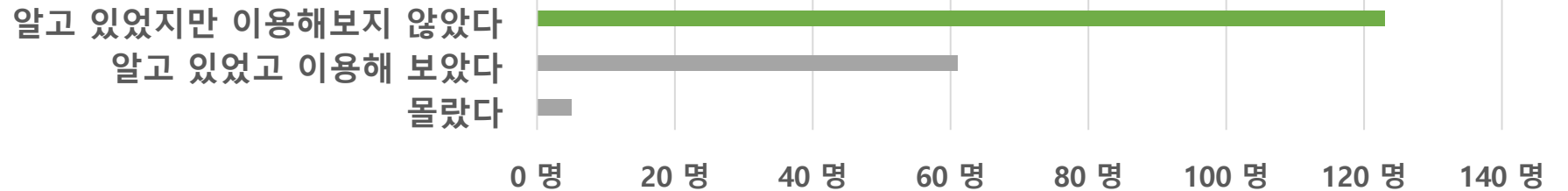
시설의 부족 또는 시설과의 거리 제약 **7%**

공감하고 유대 할 인맥 부족 **15%**

체력 부족 **7%** 

금전적 여유 부족 **8%**  (기타 **1%**)

## • 교내 상담센터를 알고 계시거나 이용해 보셨나요?



## • 이용해 보신 경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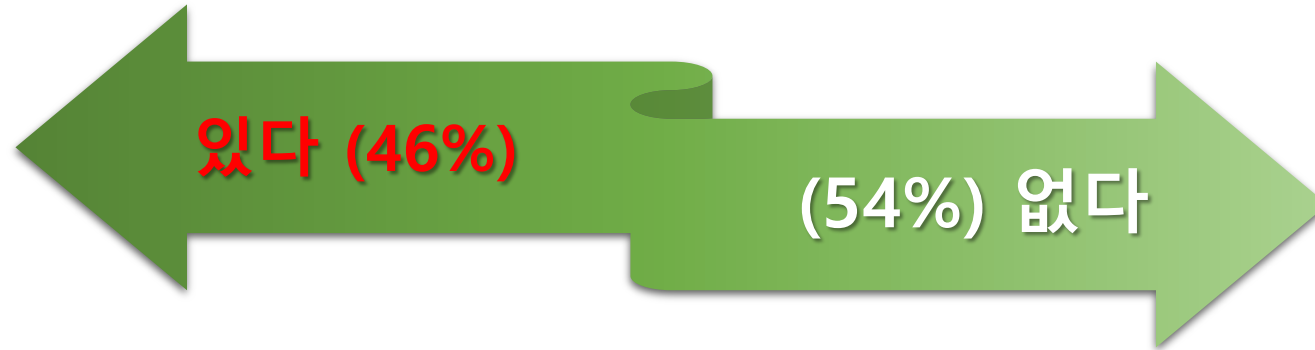
기타 스트레스 해소에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코로나 때문에 원 내 체육시설 이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안전 관리 하에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명)**
- **인건비와 휴가 일 수를 늘려준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명)**
- 친구들과 푸는 편이 제일 좋았어요.
- 주거공간이 빈약하여 스트레스가 많음.
-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생활비 실 수령액이 적어서 몇 번 먹으면 끝입니다.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장치는 여유시간 입니다.
- 만 악의 근원도, 만병통치약도 결국은 체력이다.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동안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문제의 원인이 해결 안되니 연구실로 돌아오면 다시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연구실 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 학교 포털 시스템 (ZEUS)에 신청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신청하면 마치 기록처럼 쪽 남아서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자체를 안 하게 된다.
- 실험실 내 특정 인원에게 대한 행정 업무 과다 부여 및 원 내 행정 담당 부서 측에서의 학생에게 무리한 행정 처리를 거리낌없이 요구하는 것을 막으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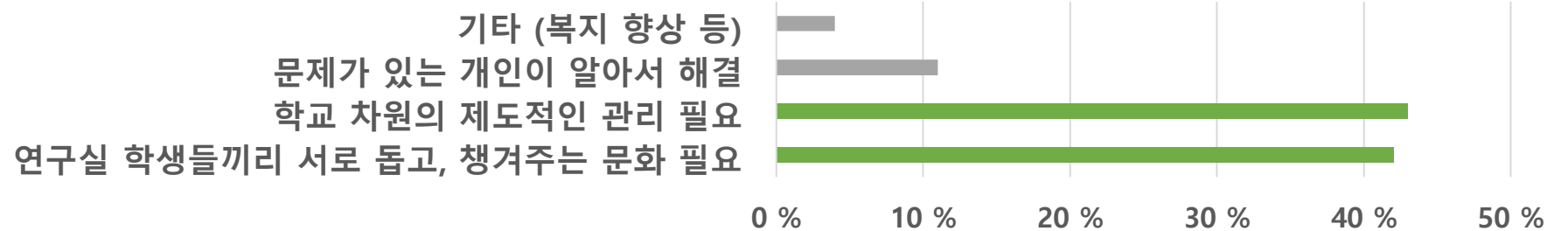
# 연구실 복지

- 1. 연구 환경
- 2. 휴가
- 3. 스트레스
- 4. 건강검진
- 5. 연구 참여
- 6. 연구 행정

- 최근 대학원생들의 자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적이 있나요?



- 자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대학원 생활 중에 극단적인 생각이 날 만큼 힘든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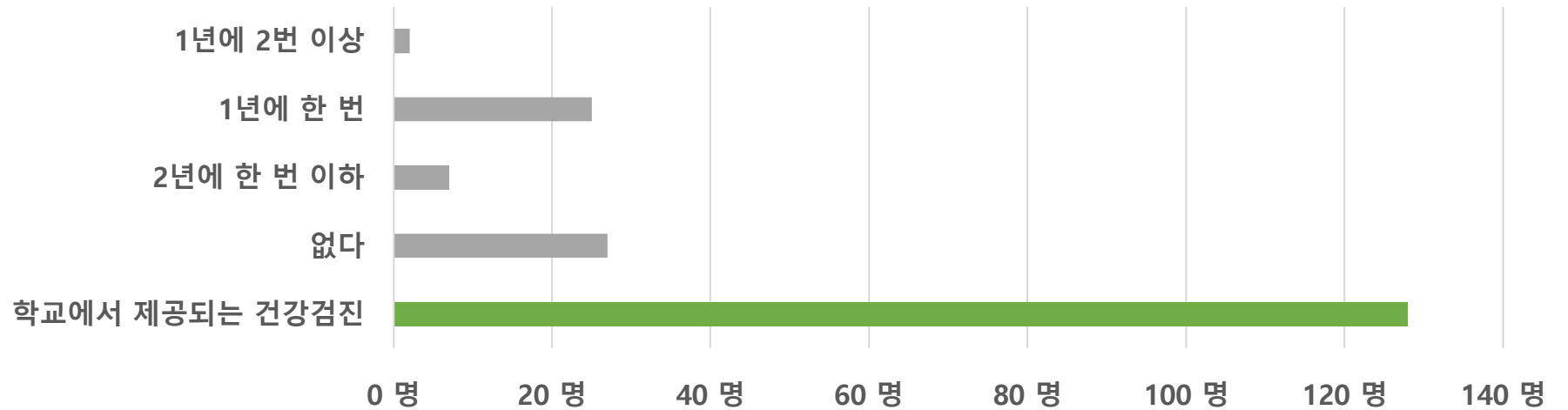


- 1. 연구 환경
- 2. 휴가
- 3. 스트레스
- 4. 건강검진**
- 5. 연구 참여
- 6. 연구 행정

• 대학원 생활 중에 건강 검진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나요?



• 대학원 생활 중에 건강 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고 있나요?



• **'없다'** 선택한 경우, 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나요? (응답자 2명 대상)

→ 건강 검진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2명 모두 응답)



기타 대학원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외부로 건강검진 및 진료를 받으러 가는 비용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명)**
- 대학원생도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해주세요 (3명)
-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건강은 체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체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더욱 더 효율적일 것이다. (3명)
- 하는 일이 많거나 서서 하는 일인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 (3명)
- 학교 차원의 건강 검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함 (내외국인 학생 모두 포함) (3명)
- 원내 식당의 개선을 통하여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3명)
  - 프랜차이즈 도입을 건의함 / 과일 메뉴 추가 요청
- 휴게실 및 식사를 위한 장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2명)
- 건강보다 연구가 우선시 됩니다. 연구를 함에 있어 건강의 이유로 대체 방법을 써서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선이 어렵습니다. (2명)

## 기타 대학원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학교 주변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주변에도 보면 다들 힘들게 고민들이나 우울감을 감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 학교 건강검진도 시행해봤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항목들도 다소 존재합니다. 연령층(20~30초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로 시행하기 보다는 분기별로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 내에 적어도 의원 수준의 의료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 금전+복지 지원과 함께 안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외 홍보나 조경, 쓸 데 없는 회의가 아니고 제대로 된 내실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학교차원에서 대학원에서 연구활동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건강검진 및 연구 활동 외 대학원생들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환경(체육관,헬스장, 기타 교양 프로그램 등) 활성화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지속가능한 연구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복지가 다양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 왜 신입생은 건강검진 안 시켜주나요?? 학교 건강 검진 6년 동안 다니면서 학부 2년 차 때 한번 받았음
- 병원도 눈치 보면서 가야하는 게 너무 서럽다

# 연구실 복지

1. 연구 환경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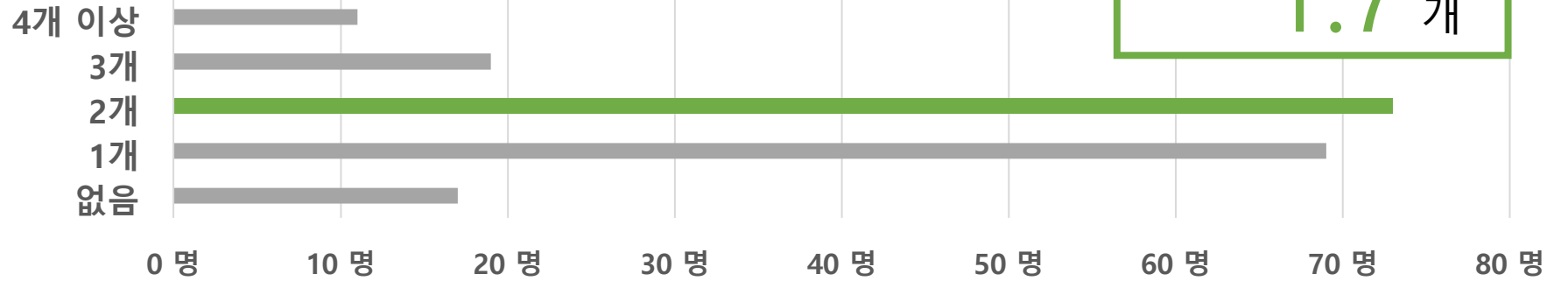
3. 스트레스

4.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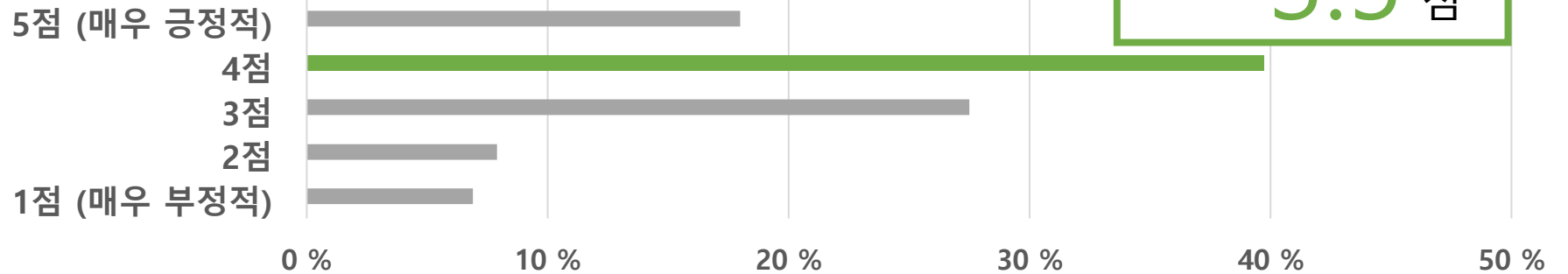
5. 연구 참여

6. 연구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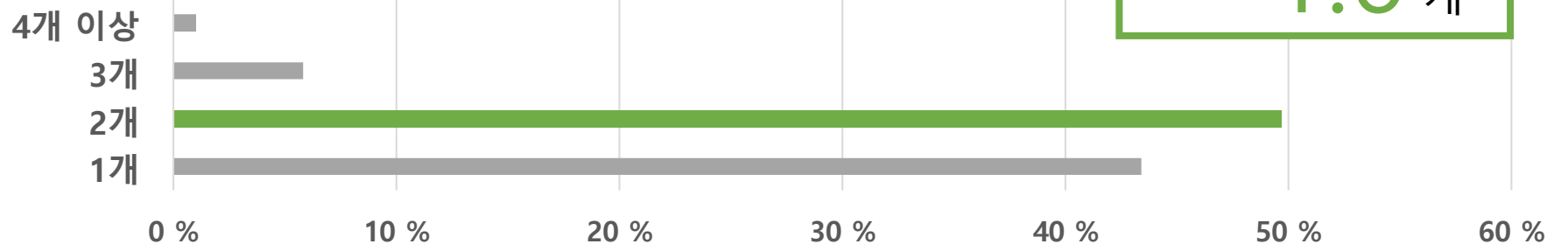
## •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개수



## • 참여한 프로젝트가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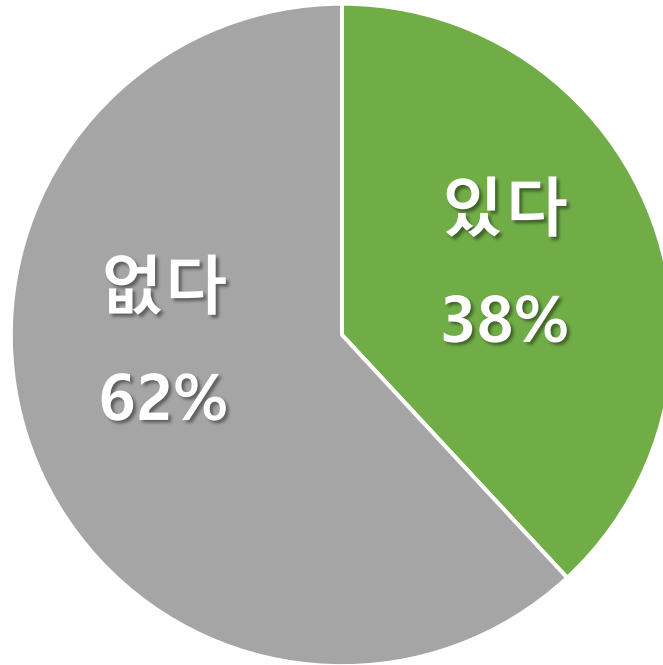
## • 학생 1명이 1년에 참여하기 적당한 프로젝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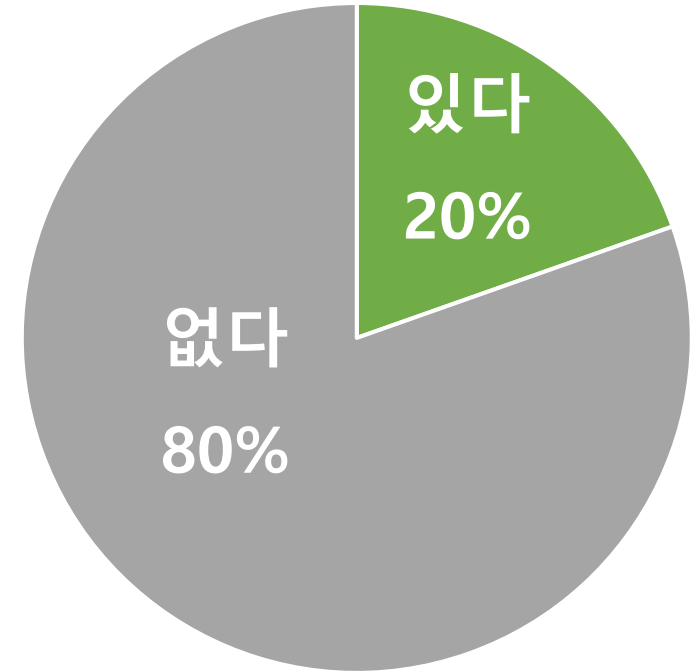
## 연구실 복지

1. 연구 환경
2. 휴가
3. 스트레스
4. 건강검진
5. 연구 참여
6. 연구 행정

- 참여하고 싶지 않은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적이 있나요?



-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의견 및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연구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음 (6명)**
  - 본인의 연구분야와 흥미와 상관없이 맡았음 (2명)
  -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지 몰랐다
  - 맡은 학생이 졸업해서 맡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며, 업무 대비 실적과 기대성과가 없습니다
- **금전적인 보상이 미비하다 / 성과에 따른 인건비 차등 지급이 필요함 (6명)**
  - 실험을 시켜 놓고 연구 수당에 대한 불균등 배분
  - 과도한 업무 강도 대비하여 적은 인건비를 받았음
  - 과제 참여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급 X,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내기 바람
  - 프로젝트에 필요한 보고서/발표자료 작성은 하지만 참여 연구원리스트에 없어 인건비 및 수당을 받지 못함
- **참여자는 다수인데 혼자 모든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함 (3명)**
  - 서류상으로 과제에 이름을 올려 인건비 총액을 맞추기 때문에 서류상 참여하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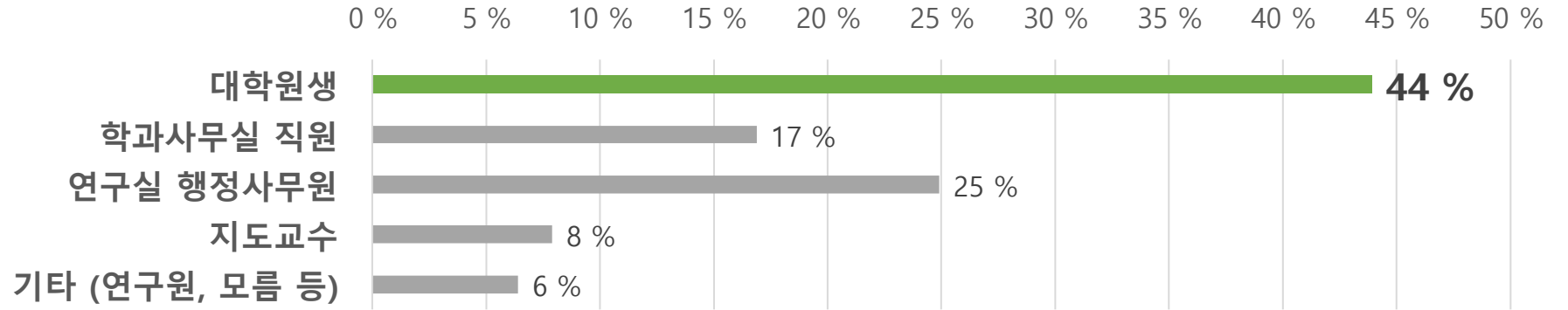
##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의견 및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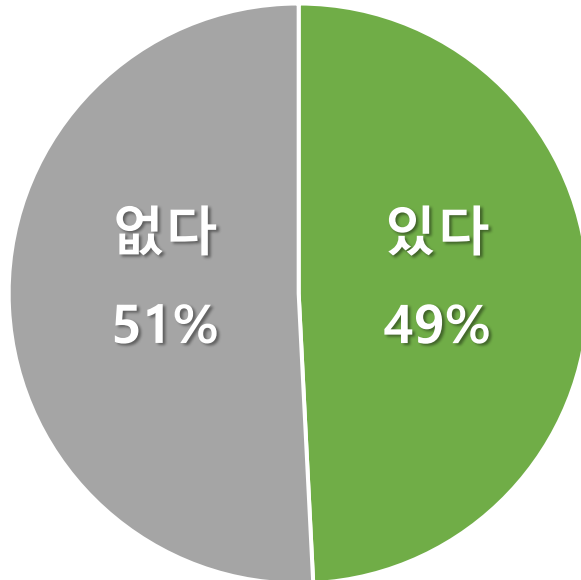
- 프로젝트 참여는 항상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연구계획서 작성부터 아이디어 도출, 실험수행, 보고서 작성 그리고 발표자료 제작 등 과제의 80%이상의 업무를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제에서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는 있지만, 연구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기 싫은 과제가 있다고 또 넘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도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과제와 떨어지면 참여하기 싫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없애려면 자유로운 연구과제가 많이 나오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 과제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연구 환경
- 2. 휴가
- 3. 스트레스
- 4. 건강검진
- 5. 연구 참여
- 6. 연구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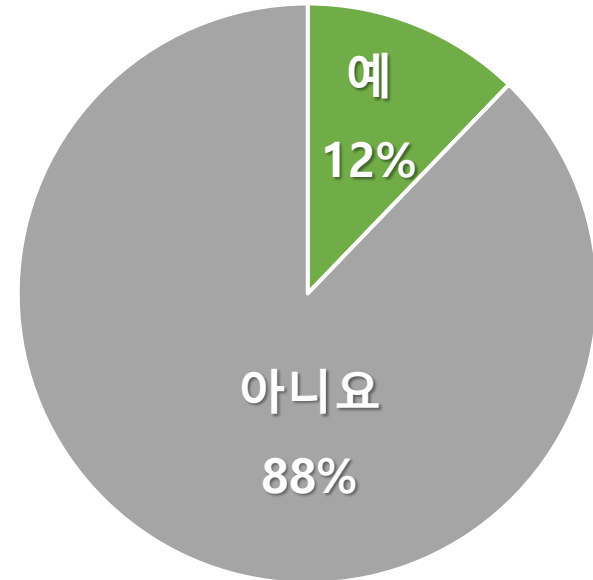
## • 연구실의 계정 처리, 기안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 • 본인이 직접 연구 외 정산 사무 등을 처리한 적이 있나요?



## • 본인이 사무적인 업무를 맡는 경우, 특별 수당을 받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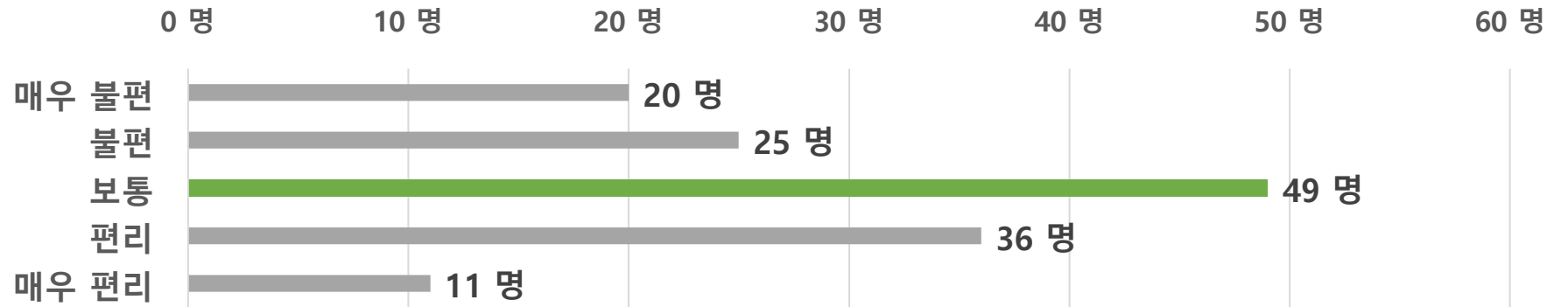


- 1. 연구 환경
- 2. 휴가
- 3. 스트레스
- 4. 건강검진
- 5. 연구 참여
- 6. 연구 행정

• 포탈 내 온라인 직접구매시스템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 위 질문에서 '예' 를 선택한 경우, 온라인 직접구매시스템이 편리한가요?



• (검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물품 검수 절차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나요?





연구 행정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구매 및 검수 과정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므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12명)**

- 불법 구매 방지를 위한 대안이 반영된 온라인 검수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4명)
- 검수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게 번거롭다. 물품을 사진 찍은 후, '물품사진+견적서'를 파일형태로 메일로 보내고 직인 찍어주는 게 훨씬 간단할 것 같다. 물론 이에 따른 악용사례가 있겠지만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칙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인다.
- 직접 구매 시스템이 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업체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 주문 제작이 필요한 용품 구매가 매우 번거롭다. 또한 동일 물품이더라도 매년 가격 변동이 있고 구매량에 따라 가격이 바뀐다. 이런 경우 어차피 업체와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이후 시스템을 통해 다시 견적 요청을 하여야 하는 부분들이 쓸모 없이 소모적인 업무 인 것 같다.
- 연구 물품 구매 시 서류 처리 과정에서 각 서류의 작성날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 1차 검수 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검수를 위해 직접 물건을 가지고 행정동으로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며, 학과사무실에서 관리해주면 좋겠다.
- 제우스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도 가능해 졌으면 좋겠음
- 연구원은 구매만 하고 거래 증빙 서류(견적서와 거래명세서)만 제출 하는 방식이었으면 함

연구 행정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연구 행정을 위한 학교의 인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 (7명)**

- GIST 직원 무기직 중에서 연구실별 또는 층별로 행정직원 1명씩 지원하면 연구에 도움이 클 것이다 (3명)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시스템인 것 같다. 다만, 앞서 기술했듯이 대학원생은 공부 및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행정 업무를 좀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
- 학부사무실 직원들이 실험실의 행정 처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 학과 건물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도서관에 2검수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 행정에 대한 대폭 간소화가 필요하다 (3명)**

- 누군가 나서서 항목 하나하나 간소화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대폭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학생이 연구 행정을 맡을 경우,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2명)**

- 학생이 연구 행정 맡을 경우, 일정 금액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생회장 포함). 또한 전문연구요원 신분인 경우 지급이 안되는 것이 이상함.

- **행정 담당 직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음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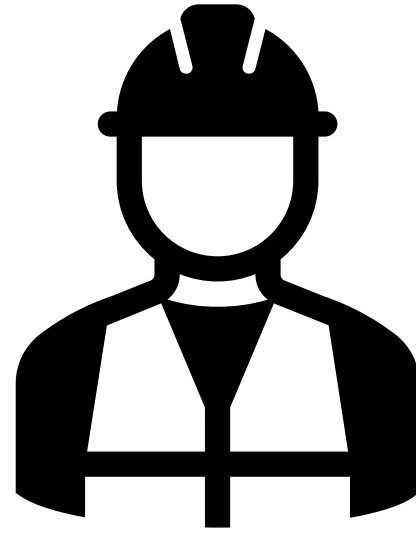
- 공익 아저씨 담배 피러가는 건 좋은데 잠깐 자리 비우는 거라고 표시 좀 해주세요.
- 행정직원은 갑이고 학생은 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음.

연구 행정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연구 행정으로 빠돌리는 금액이 많음.
- 가끔 연구직의 행정업무 과중이 이슈되긴 해도 그 때 뿐입니다. 제안을 하자면 1. 물품 구매는 연구실 단위로 공통 계정을 통해 구매하고 서류에는 구매 번호, 날짜, 사유만 간략히 기입 => 추후 확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검수 기관에서 확인 2. 솔직히 말해서 n개의 과제를 수행할 때 모든 금액처리를 칼같이 나눠 처리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연구실 단위로 연구비 풀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 현실적으로 연구 행정을 연구원 및 학생이 할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던지, 아니면 아예 행정인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간소화를 진행해주었으면 합니다. 4. 연구 제안서 작성시 시장 및 연구 현황 조사 항목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사 격인 부분은 이미 RFP선정 단계에서 거르는데 사용 해야지, 굳이 작성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구 행정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옛날에 구매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업체에 직접 전화 걸어서 견적서를 받고 거래명세서를 받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ZEUS에 등록이 안된 업체가 있으면 등록하는 법을 알려줘야 하고, 등록된 후에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업체가 실수하면 다시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는 매번 직접구매 사유서를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직접구매 사유서 작성 시 학과에 따라 처리를 간간하게 할 경우 학생들의 업무시간의 80%가 구매에만 쓰입니다. 또한 구매시스템의 경우 겉으로 편해 보이지만 유통업체의 담당직원이 깜빡해서 안 올리거나, 견적마감 날짜를 넘겨서 보내주는 경우 업체에 전화해야 합니다. 또한 매번 부서장, 교직원, 검수자 이름을 계속 입력해야 하고, 결제하는 과제가 변경될 경우 구매자 이름까지 바뀌어야 해서 구매시스템이 있기 전보다 딱히 편해진 건 없습니다.



## 4. 연구실 안전

연구실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 연구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나요?

있다 **74.1%** **25.9%** 없다

- 연구실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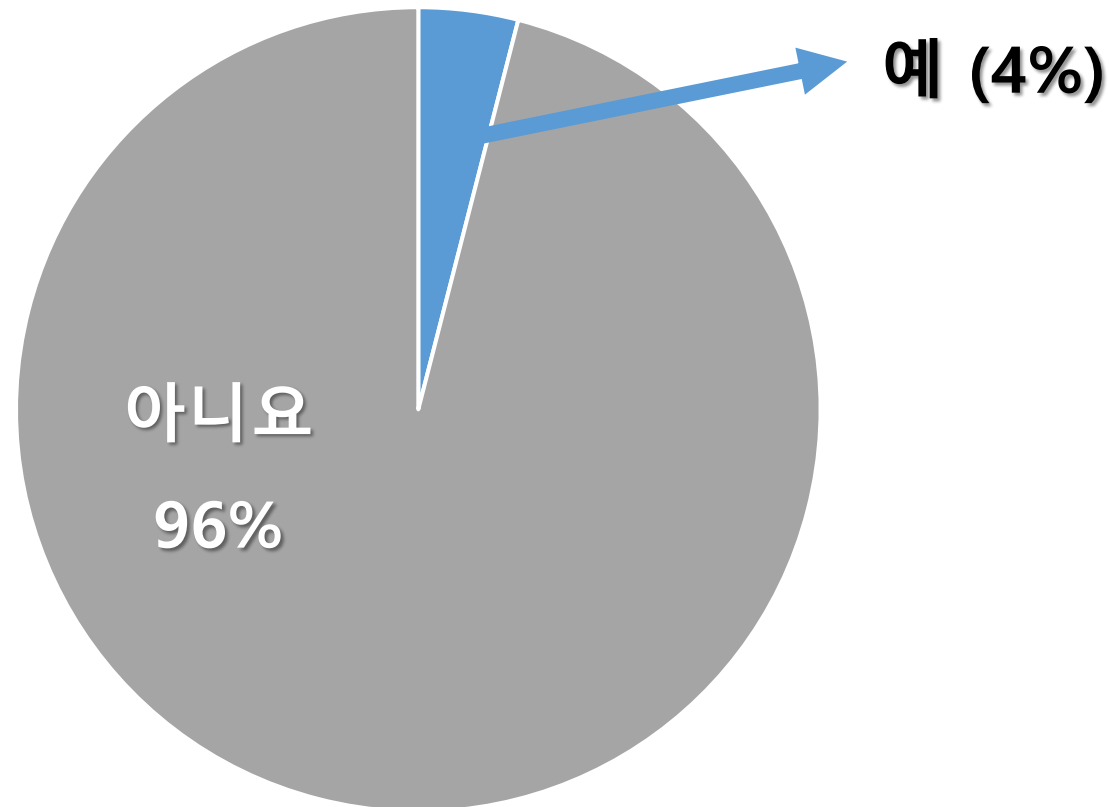
구분	비율(%)
<b>예,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b>	<b>52.4</b>
아니오, 실험자의 부주의	7.4
아니오,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	7.4
아니오, 안전 장비의 부재	5.3
아니오,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무관심	6.3
기타(아니오 모두 해당, 정전 종종 발생 등)	1.6
해당 없음( 안전관리가 필요한 연구장비가 없음 등)	19.6

-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실인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이 분리되어 있나요?

예 78.3% 21.7%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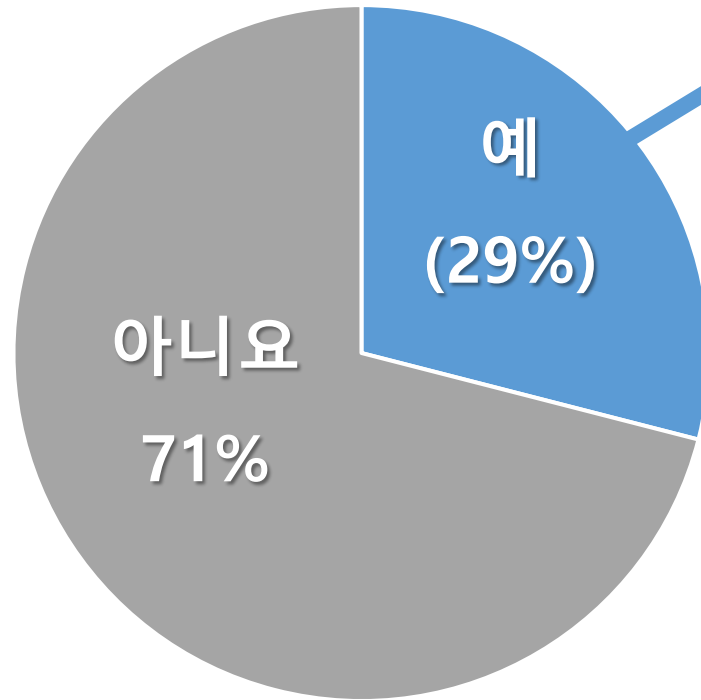
## 1. 안전 관리

- 안전팀에서 응급신고 기능이 포함된 GIST 안전 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전 앱을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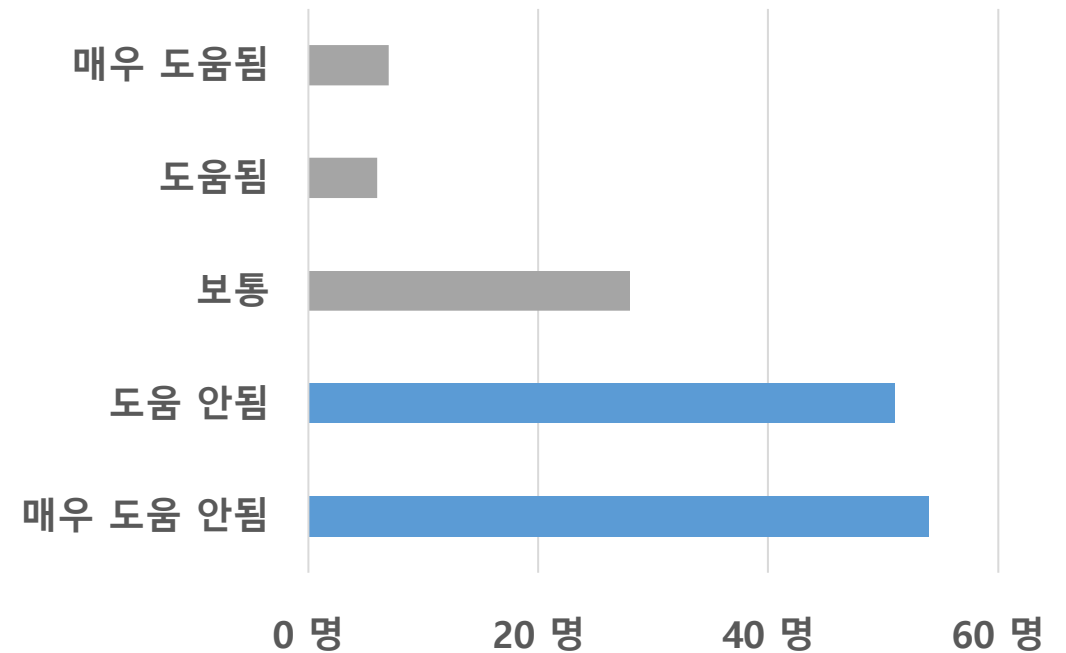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점검을 위해서 일상점검체크 리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나요?

## 1. 안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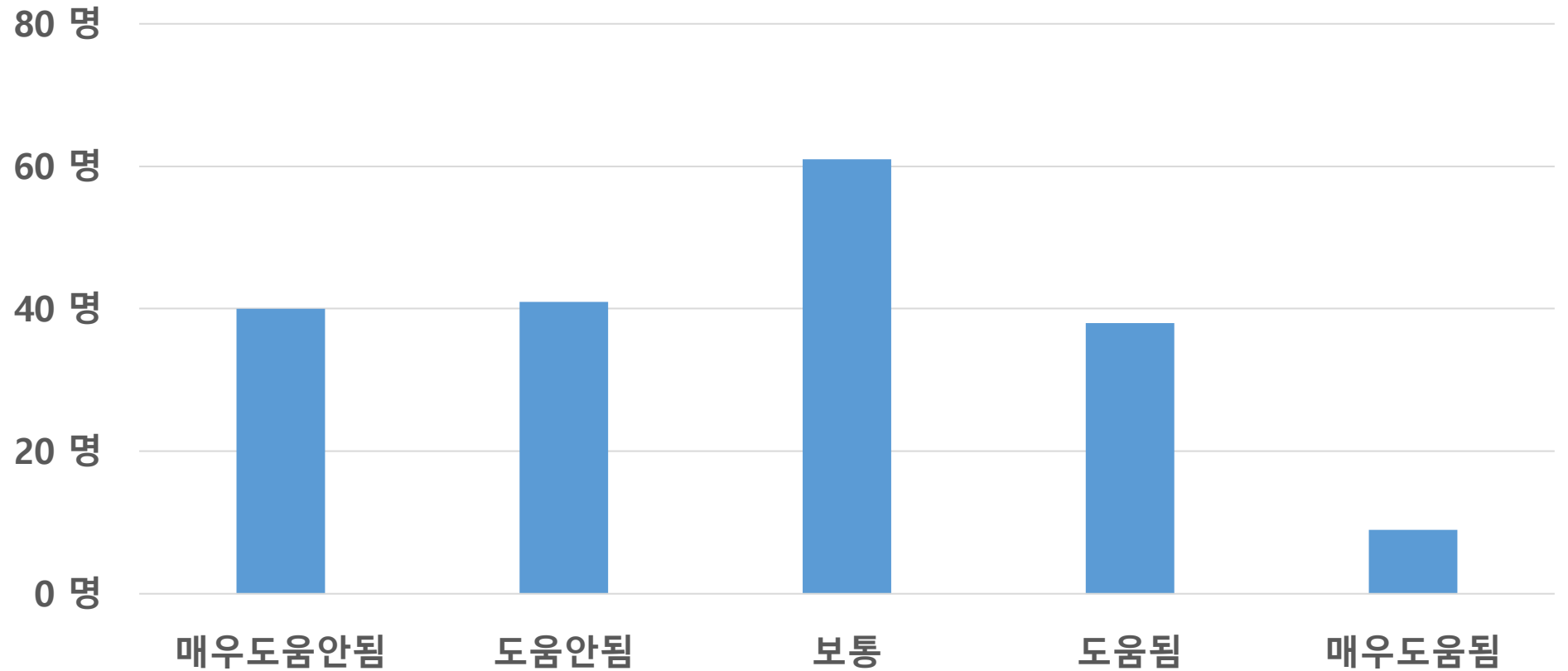
- 위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일상점검 체크리스트가 연구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이 연구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1. 안전 관리



안전한 실험 환경 조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안전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가 까다로워 연구활동에 방해되거나 시간 낭비가 크며 비효율적이다 (8명)**
  - 솔직히 다 프로그램 어떻게 해서 수강시간 채워서 넘긴다는 것 알지 않나요?... 안전관리담당자를 학생으로 지정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전일제 노동자가 아닌데 안전관리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부터 연구를 위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매해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학생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구안전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그런 것 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자기가 쓰는 물질이 어떤 성질인지 모르고, MSDS를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 MSDS를 비치해두면 안전관리상 이상이 없다고 넘어갑니다. 이런 게 사고의 시발점 입니다.
  - LMO 안전 규정이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 일상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5명)
  - 일상점검체크, 사전유해인자 분석 작성 등 연구 안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실험 환경 조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학교 차원에서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 장치 및 환경 조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명)**

- 시약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온라인상에 등록하게 하는 건 형식상의 행동이라 생각됨) 시약 전체를 통합관리해서 안전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번거롭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 상위기관에서 오는 검사가 너무 많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여기 시간 빼앗기는 게 아깝고 이미 건물구조를 바꿀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서 매번 지적 받아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 공간자체가 좁아서 안전지침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음.  
오피스에 사람 수나 장비양을 고려한 여유공간 지침도 필요한 것 같다.
- 실험실 규모와 노후된 건물에선 이전부터 연구실과 실험실이 합쳐져 있음. 연구실과 실험실을 나누려면 학교 자체에서 공사를 하거나 다른 빈 강의실을 더 늘려야함.
- 안전 컨설턴트가 실험실에 방문하여 연구실별 상황을 보고 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 안전에 경각심 갖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용의 편의성이 부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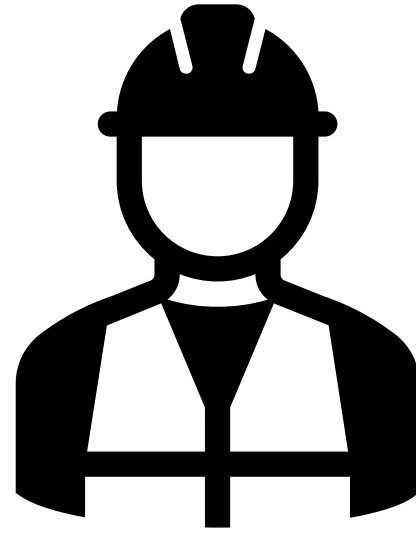
안전한 실험 환경 조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온라인 안전교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6명)**

- 교육이 무의미함. 담당자 지정 및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한 책임감 증대 필요
- 온라인 안전교육 왜 하는지 모르겠음.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이 위험한걸 누가 몰라요. 그냥 안 하는 거지. 이거 효용성 없이 시간 낭비하는 느낌
- 실험실별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 교육의 경우 필수로 들어야하는 항목이 2개인데 어쩔 수 없이 관련 없는 분야도 수강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짧고 강력한 교육매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기가 사용하는 실험실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주면 좋겠다 (2명)

• **교수님 또는 책임자의 관심 및 자각이 필요하다 (3명)**

- 교수님들이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라 안전에 제대로 된 관심이 없다. 학생들 금전+복지 지원과 함께 안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건 대외 홍보나 조경, 쓸데 없는 회의가 아니고 제대로 된 내실을 갖추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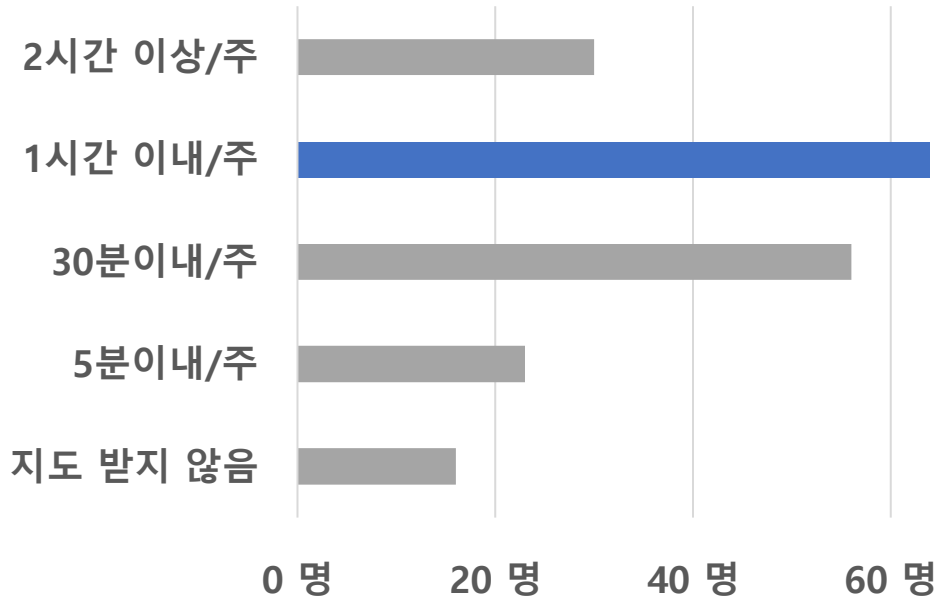
## 5. 연구 지도

대학원생들의 연구지도, 자기계발 등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 1. 연구 지도

## 2. 자기 계발

- 지도교수님과 개인 연구지도를 위한 만남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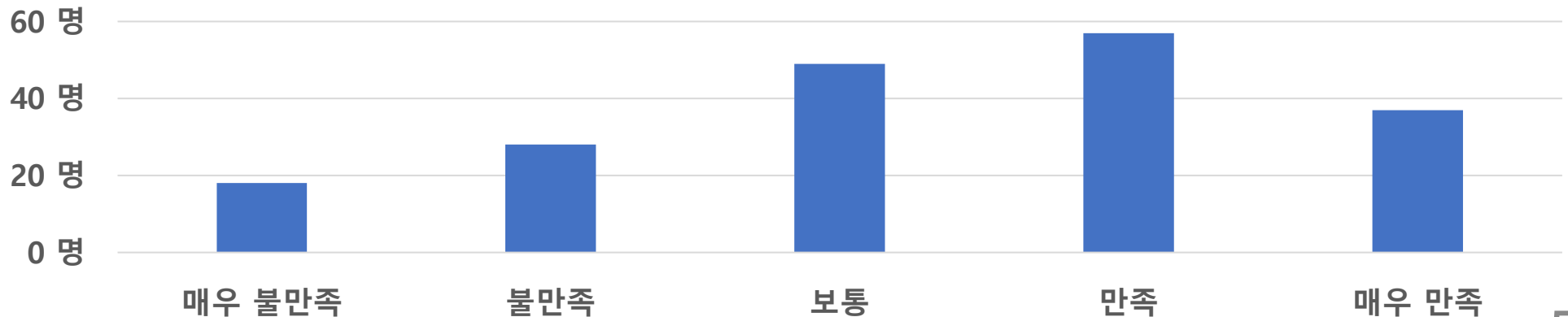
- 현재 지도 횟수에 대한 생각은?

부족하다 20.1%

적당하다 67.7%

과하다 12.2%

- 교수님의 연구 지도에 만족하는 정도는?



## 교수님의 연구지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 교수님의 연구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음 (12명)

- 본인 전공분야가 아닌 연구주제에 대해 편협된 시각과 억지주장을 강요, 논문 게재를 위한 관심, 노력 부족
- 당근 없는 채찍질
- 폭언 및 인격모독 (3명)
-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다
- 강압적 업무지시 / 타업무에 필요한 시간 무시
- 큰 과제 위주, 석사과정 1년 차로서 부족
- 교수는 자기 말만 맞다고 한다
- 프리한 자기 생활로 인해 교수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음.
- 학생수가 많아질수록 교수님의 지도 횟수 및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
- 짧은 시간동안 매우 과한 결과를 내길 요구함. 연구적으로 심도 있는 지도를 받아본 지 오래됨.
- 지나친 완벽주의성향과 하셨던 말씀이 바뀐다

## 교수님의 연구지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 연구실 및 개인 연구에 관심이 없음 (7명)

- 주당 4시간 이상 미팅을 갖고 있으나 개인 연구지도는 없고 과제에 필요한 일에만 관심이 있음
- 진짜 그림만 보심. 말 그래도 내용을 안 보고 그림만 봄
- 랩미팅에 들어오지 않음, 학생 논문 지도 안함, 학생들에게 연구가 아닌 자기 회사 프로젝트 진행 지시.
- 교수님이 연구보다 개인 사업을 위한, 논문쓰기에 좋지 않은 과제에 더 관심이 많음
- 최근 트렌드를 공부하지 않으신다

### • 교수님과 미팅의 기회에 대한 시간이 적거나 별로 없음 (6명)

- 연구적 논의가 아닌, 그림 수정, 폰트 사이즈 수정 등 연구적 내용이 아닌 논의만 미팅 때 오고 감.
- 외부 활동이 잦음

### • 연구 지도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2명)

- 일을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고, 사수를 통해서만 일한다.
- 상하관계로 인한 나 자신의 의견표현이 어려움. 교수님께서 실제 연구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 과한 업무가 생겨도 잘 모르심.



## 교수님의 연구지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공부 및 연구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교수님의 지도만 바라보아서는 졸업 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 교수님도 앞으로 지향하는 연구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실 잘 모르는 분야를 지도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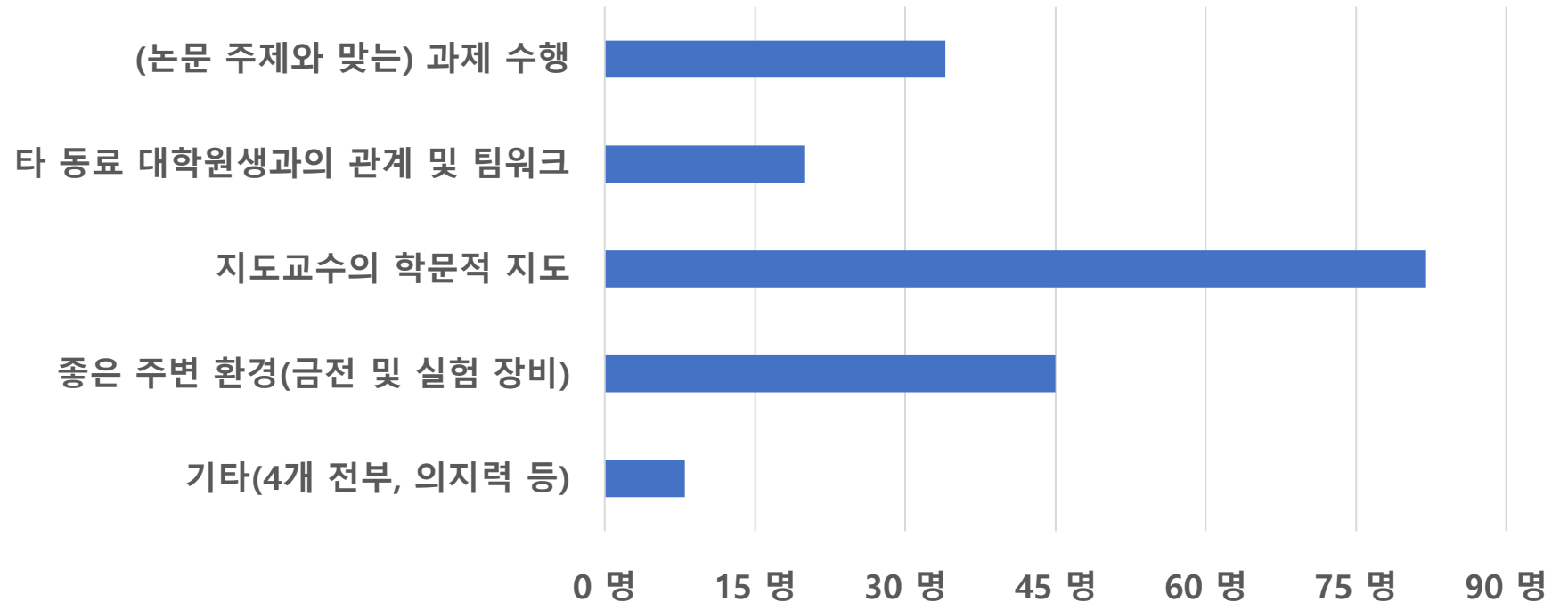
- 논문 주제 선정 시,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도교수님에 의해 연구 주제 및 방향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 1. 연구 지도

## 2. 자기 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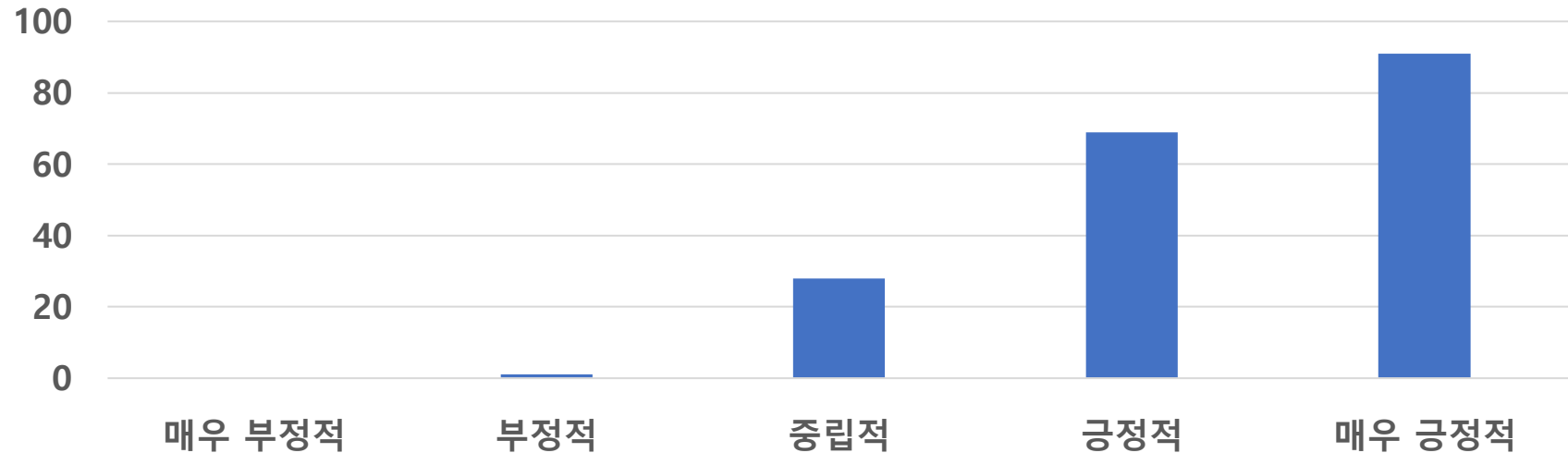
- 자신의 논문 성과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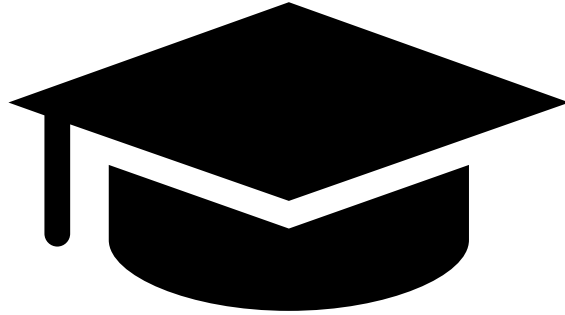


- 자신이 발전하기 위하여 연구능력 이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구분	비율(%)
어학실력	39.2
발표능력	22.8
체력관리	18.5
충분한 휴식	16.9
기타(연구이외 업무 경감 등)	2.6

- 연구 이외에 연애,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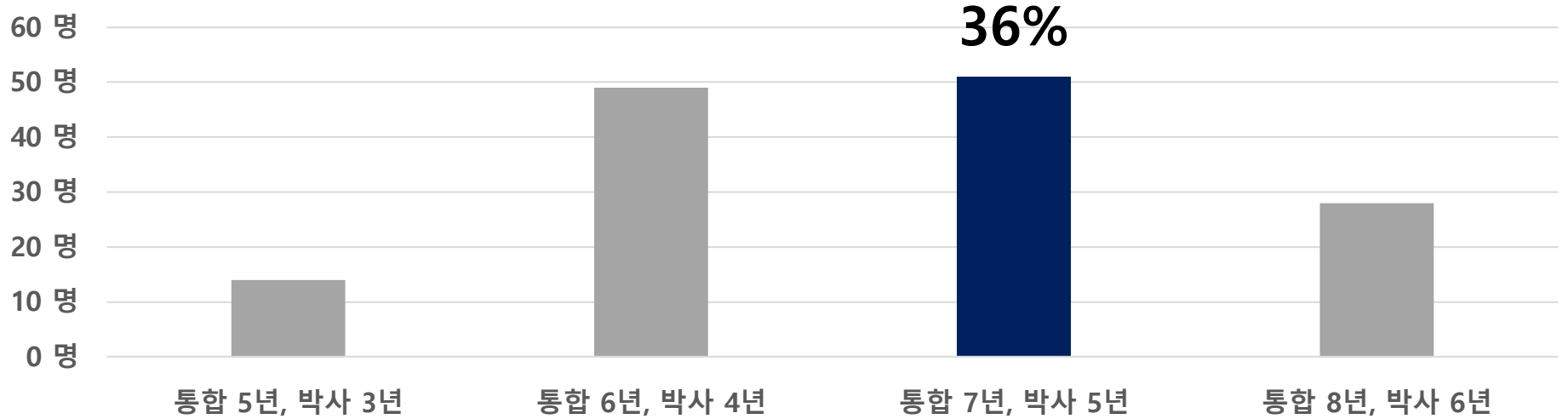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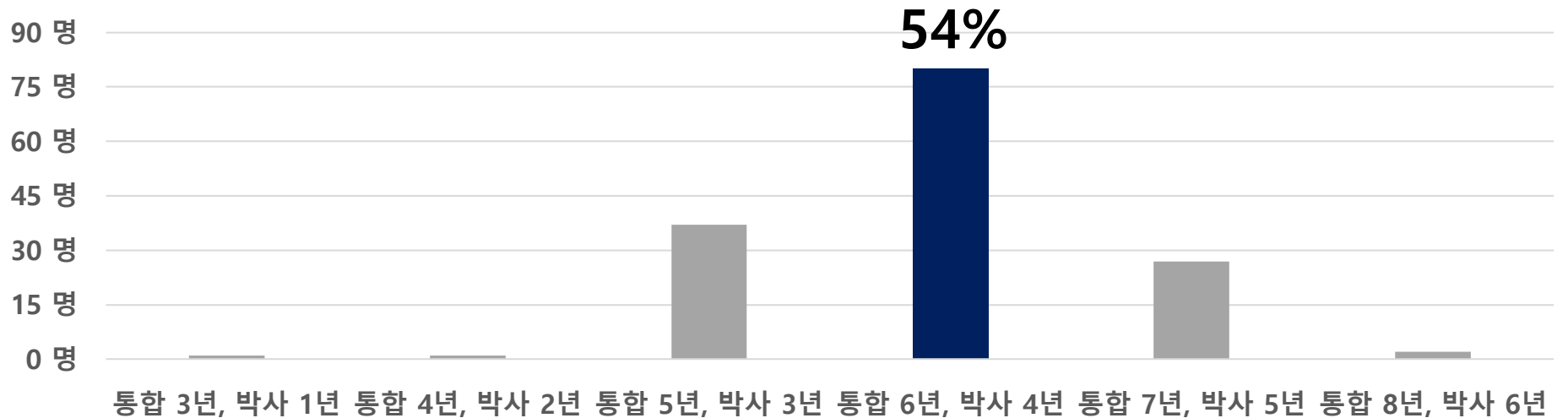
## 6. 졸업 및 진로

대학원생들의 졸업 및 진로 등에 대한 설문입니다.

• 연구실 평균 졸업 시기는 언제 인가요?



• 통합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 적당한 졸업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 연구실 내에 학과, 학교 규정 외에 자체적인 졸업 기준이 있나요?

있다 **42%** **58%** 없다

- 그 졸업 기준이 합당합니까?(위 질문에서 '예' 라고 대답한 80명 대상)

예 **73%** **27%** 아니요

- 초과 학기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있다  
(11%)



없다  
(89%)



**알고 있는 페널티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인건비 감소로 인하여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지 않음 (5명)**

- 국가보조비가 안 나와서 월급이 확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신경하거나 신경을 써도 국가보조비 만큼 안 채워 주는 교수들 꽤 있다고 들음.
- 월급을 감액하는 경우는 흔하고, 16학기 이상 다니는 학생의 경우 휴학하고 연구실을 출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등록비를 요구하거나, 생활비 및 장학금이 제한됨 (5명)**

- 평균 졸업 학기를 생각했을 때, 너무 짧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 등록금을 내야 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졸업 논문 디펜스를 안 받아줌
- 일반적으로 초과학기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 남아있는 경우인데 이는 연구실에서 안 챙겨줄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페널티 항목을 없애 주세요.

- 심리적인 압박
- 수수료만 하고, 나가라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
- 국가지원금이 왜 끊기는 걸까요? 그냥 현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석사 과정만 응답) 대학원 졸업 후 자세한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분	비율(%)
GIST에서 박사학위 진학	10.5
국내 다른 대학에서 박사학위 진학	7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진학	15.8
<b>산업체 취업</b>	<b>52.7</b>
국가 연구소 취업	10.5
창업(스타트업 포함)	1.8
기타(미정)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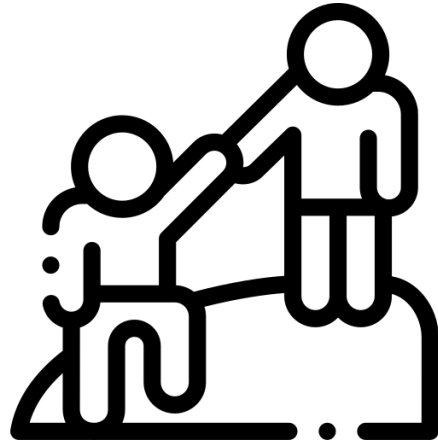
- (통합 및 박사 과정만 응답) 대학원 졸업 후 자세한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분	비율(%)
GIST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진학	1.6
국내 다른 대학 혹은 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진학	13.8
<b>외국 대학 혹은 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진학</b>	<b>35.8</b>
산업체 취업	23.6
국가 연구소 취업	23.6
기타(미정 등)	1.6



-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학교나 교수님이 도움을 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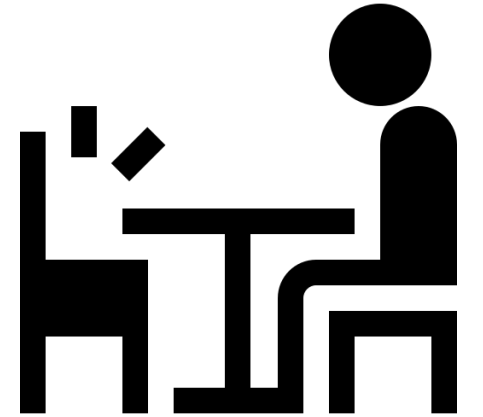
1. 졸업 및 진로



그렇다  
(50%)



아니다  
(50%)



**졸업 및 진로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졸업자의 진로에 대해서 교수님 또는 학교 차원에서 신경 써서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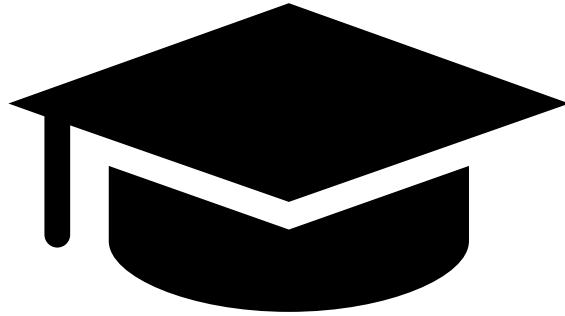
- 졸업 후 학교의 지원 아래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없어서 아쉽습니다
- 졸업 후 진로가 탄탄하면 알아서 학생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대학원 들어올 듯
- GIST는 너무 취업이 안됩니다. 이렇게 취업 안되는 대학원 처음 봤습니다.
-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정말 너무 부족해요. 특정 과만 많아요
- 교수는 실적에 연연하여 논문을 많이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

• **졸업 기준에 대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4명)**

- 졸업을 제 때에 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명)
- 랩실별 졸업 기준은 의무 학기 과정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초과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는 막아야 합니다. 연차초과의 책임은 학생 뿐 아니라 지도교수의 책임도 있습니다. 연차초과시 지도교수에게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졸업 및 진로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지스트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 졸업논문 템플릿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거의 선배로부터 대물림 받은 워드파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중에는 너무 너무 바빠서 취업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선배들과의 개인적인 면담 시간을 잡으면 좋다. 결국, 연구 분야가 맞아야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소 및 기업의 각 부서 내에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 현재 국내에 수 많은 대학원들이 반도체 산학협력 과정으로 산학장학생 뽑는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항상 그렇듯 GIST는 하나도 없고, 다른 분야도 산학장학생을 의무 선발하는 학과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졸업생의 80%는 회사 가고 싶을 텐데 무슨 자신감인지 돈도 안되는 과제 주구장창 돌리고, 석사과정들에게 실적 몰아주지도 않고, 교수님들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 학생들을 취업시키려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GIST로 진학하는 학생들 수준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 7. 인권 문제

연구실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설문입니다.

- 지도교수의 사적인 일에 부당하게 동원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요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있다

12%

88%

없다

1. 사적 인력동원

2. 독립계좌

3. 폭언 및 폭행

4. 성희롱/성추행

5. 인권센터

< 부당하게 요구된 사례 리스트 >

기사 요구	교수님 이삿짐 나르기
대리 수업	교수님 사무실 청소
사모님과의 시간 보내기	교수님 물건 운반
컴퓨터 수리	택배 수령
함께 운동	휴일에 워크샵 동원
교수님 워크샵 대리 강의	암묵적으로 선물요구
교수의 사업체의 프로젝트 진행	교수의 사적인 미팅 강제 참여

1. 사적 인력동원

2. 독립계좌

3. 폭언 및 폭행

4. 성희롱/성추행

5. 인권센터

- 연구실에서 해당되는 독립 계좌(랩비)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 **17%** **83%**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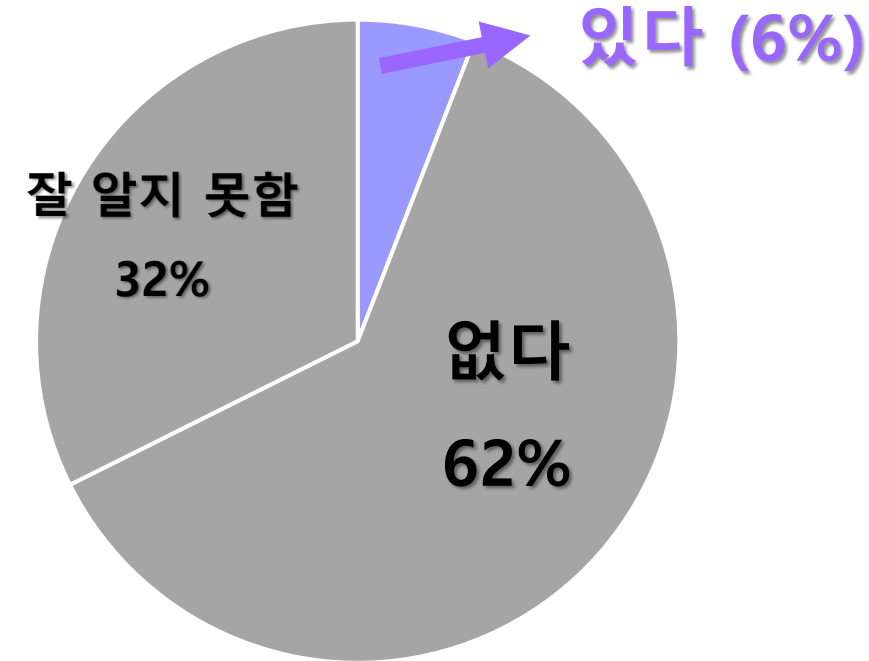
- 독립 계좌의 규모

구분	비율(%)
<b>운영하지 않음</b>	<b>83.1</b>
0~50만원	5.3
50~100만원	2.6
100~500만원	2.1
잘 알지 못함	6.9

- 독립 계좌의 조성 방식 (복수응답)  
[이전 질문 '있다' 응답자 대상]

구분	비율(%)
<b>인건비를 통해</b>	<b>46.2</b>
명목상 자발적 벌금 및 회비를 통해	30.8
출장비를 통해	11.5
기타(교수님 자비, 모름)	11.5

- 독립 계좌의 금액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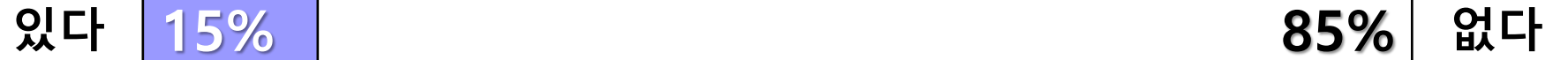


기타 독립 계좌로 운영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운영되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 인권 문제

- 연구실 내에서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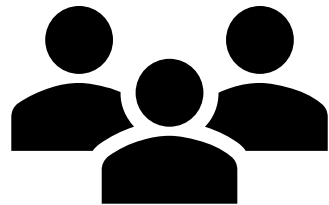


- 누구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경험했나요? (복수응답)
- 어떤 종류의 폭언을 경험했나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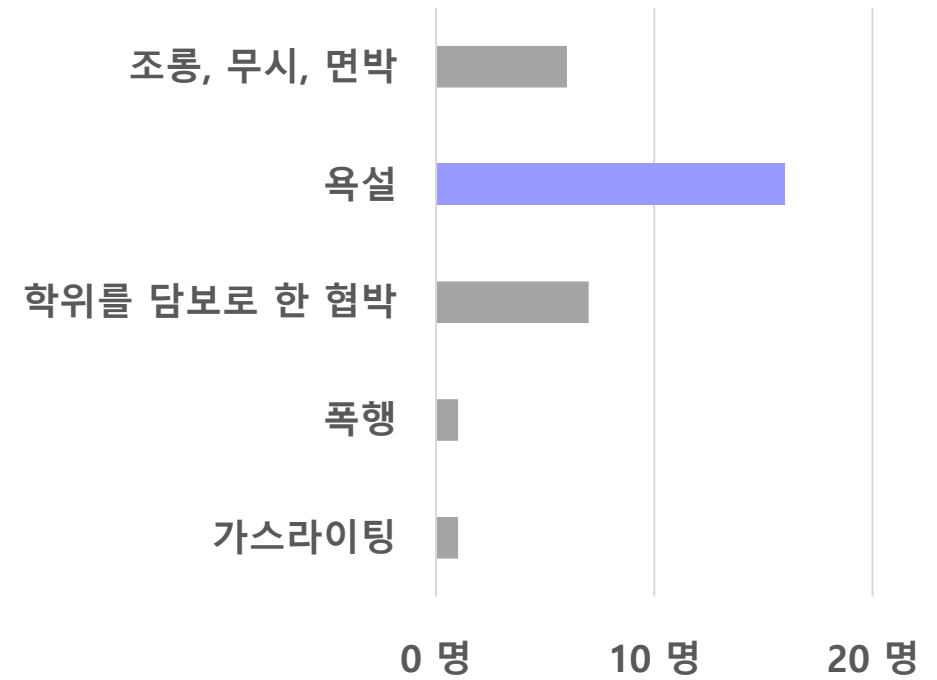
1. 사적 인력동원
2. 독립계좌
3. 폭언 및 폭행
4. 성희롱/성추행
5. 인권센터



지도교수  
(55%)



연구실 동료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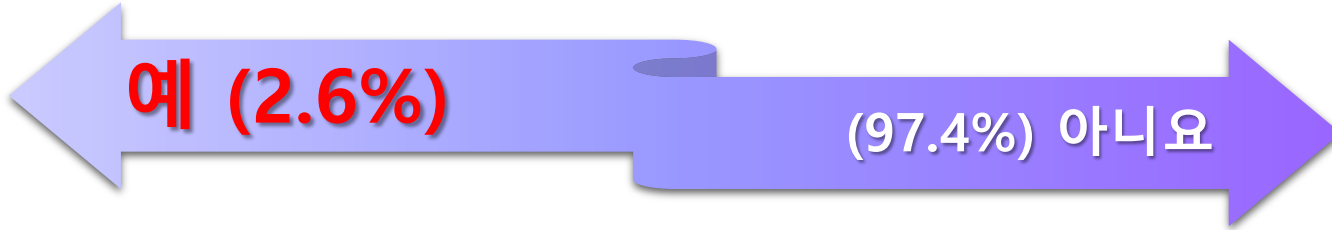




# 인권 문제

- 1. 사적 인력동원
- 2. 독립계좌
- 3. 폭언 및 폭행
- 4. 성희롱/성추행
- 5. 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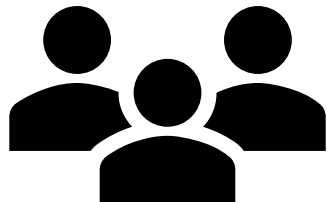
• 연구실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누구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했나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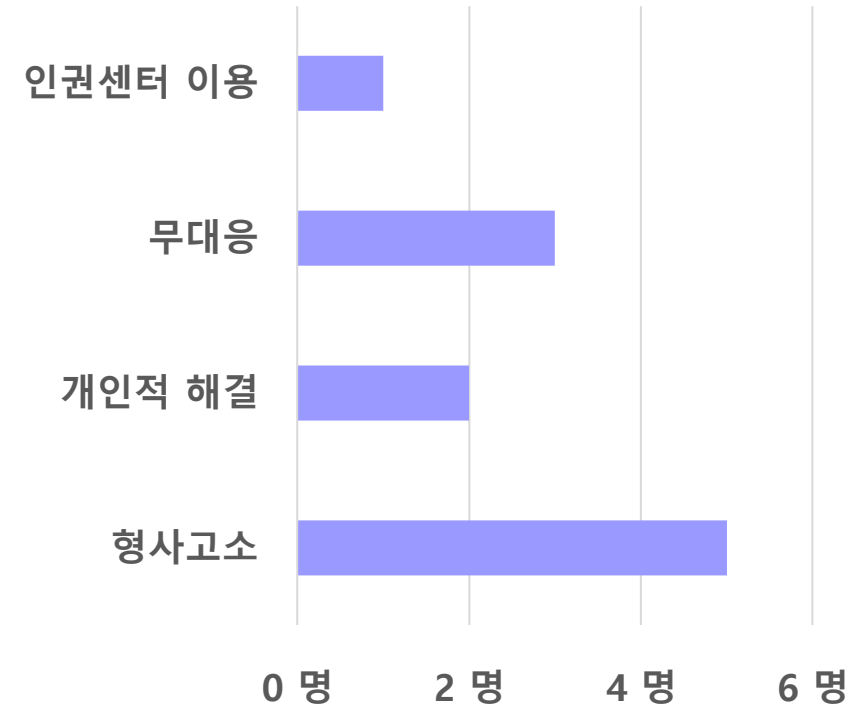


지도교수  
(1건)



연구실 또는  
타연구실 동료  
(4건)

•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했다면,  
이후 어떻게 대처했나요?



위 선택지 이외에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우를 받은 적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히 적어주세요.

- **급여 불평등 문제 (5명)**

-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한명이나, 급여는 균등 분배 (2명)
- 교수와의 불화로 인해 최저 인건비 이하로 인건비를 지급함.
- 마음에 드는 학생 인건비 더 챙겨 주기. 마음에 안 드는 학생 인건비 덜 주기. 밋 보이면 인건비 깎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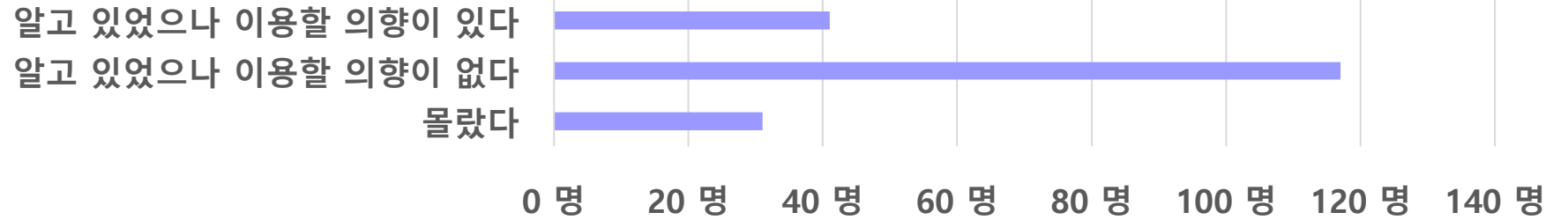
- **논문 저자 문제 (2명)**

-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을 붙잡기 위해 1저자를 임의로 지도교수가 변경함.
- 농담인 척 학생을 발로 참
- 데이터 및 결과를 특정 학생에게 몰아주는 등의 편애는 들었던 적 있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목격한 경험을 들은 적은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백이 모자라 쓰지 않겠습니다.
- 매년 실시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처우. 무엇을 위해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지 궁금함.  
다른 사람은 해당 설문조사 실시 후 본인에게 직접 피드백이 왔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지 의아함.
- 하고 싶지 않은 운동 및 파티를 함
- 연구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과제나 대외적인 이미지만 챙기려고 함.

# 인권 문제

1. 사적 인력동원
2. 독립계좌
3. 폭언 및 폭행
4. 성희롱/성추행
5. 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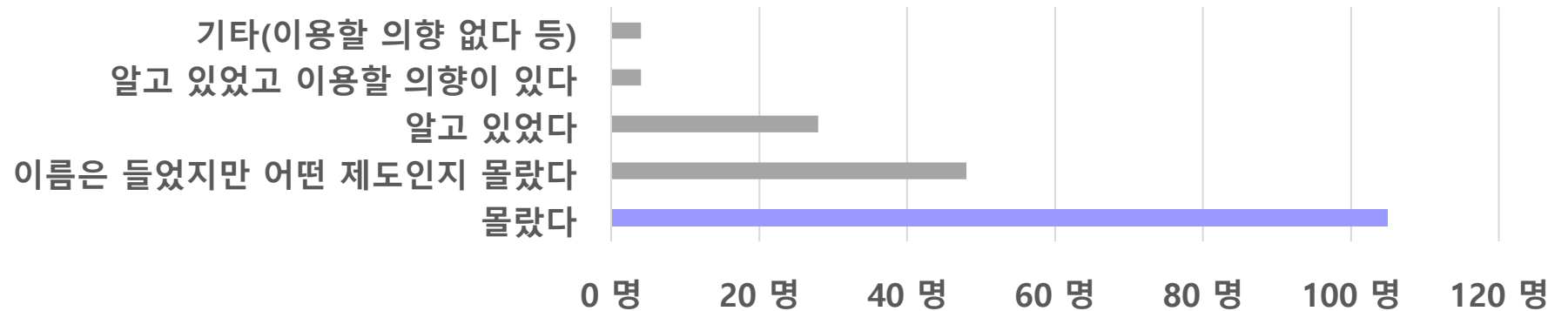
## • 인권센터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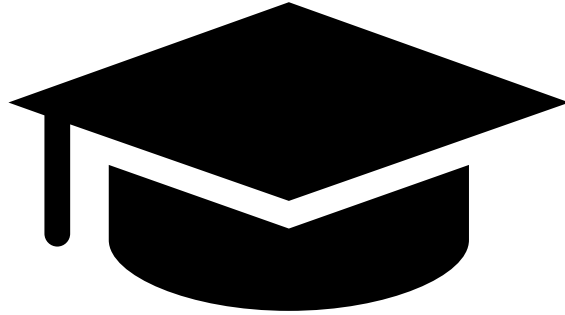


## •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비율(%)
<b>인권센터를 이용할 일이 없어서</b>	<b>41.3</b>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8.6
신뢰가 가지 않아서	23.3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서	6.9

## • 학생 옴부즈퍼슨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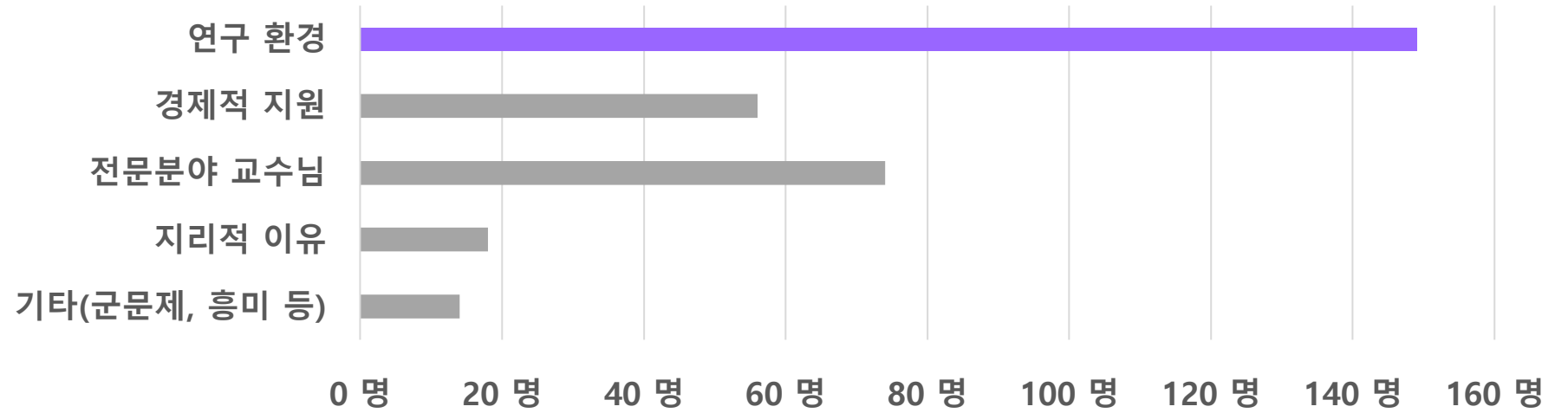


## 8. 대학원 진학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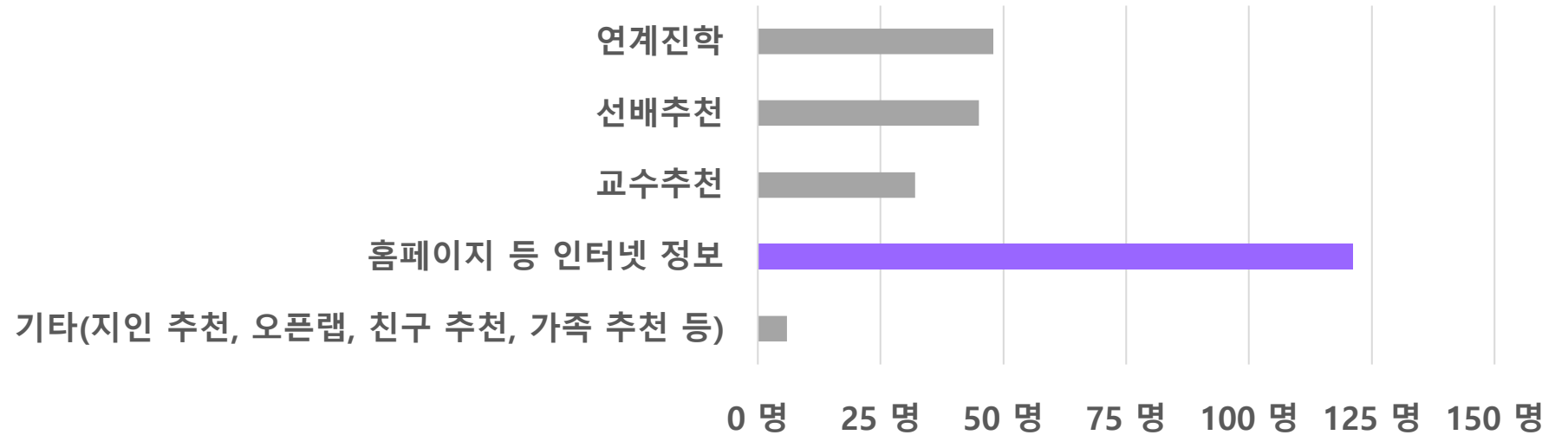
지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 등에 대한 설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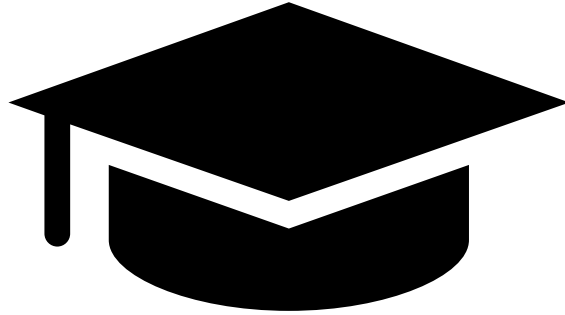
## 1. 대학원 진학

- 지스트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 지스트 대학원 진학 시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까? (복수응답)





## 9. 코로나-19 대응

COVID-19 관련한 설문입니다

1. 코로나-19

-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나요?



그렇다  
(77%)



아니다  
(23%)



-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다  
(51%)



없다  
(49%)



- 교내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과 정보 공유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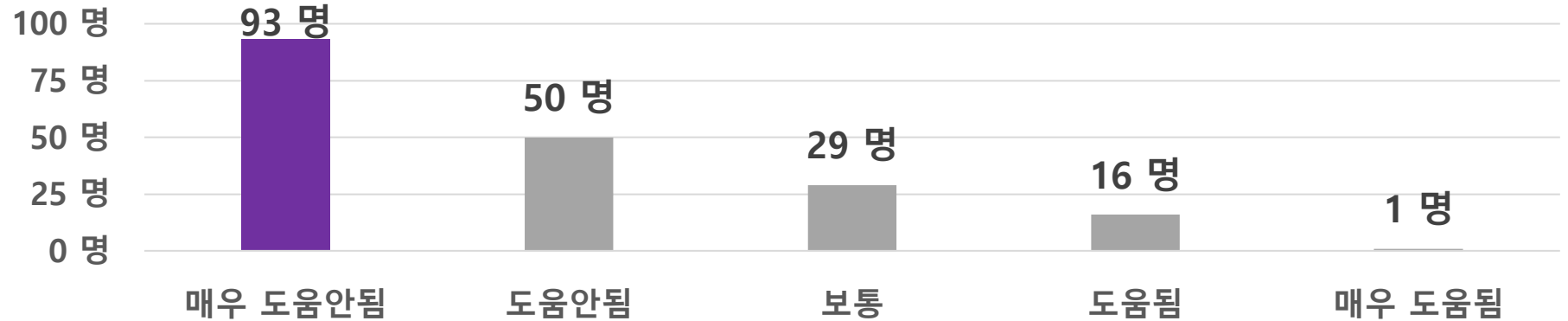
그렇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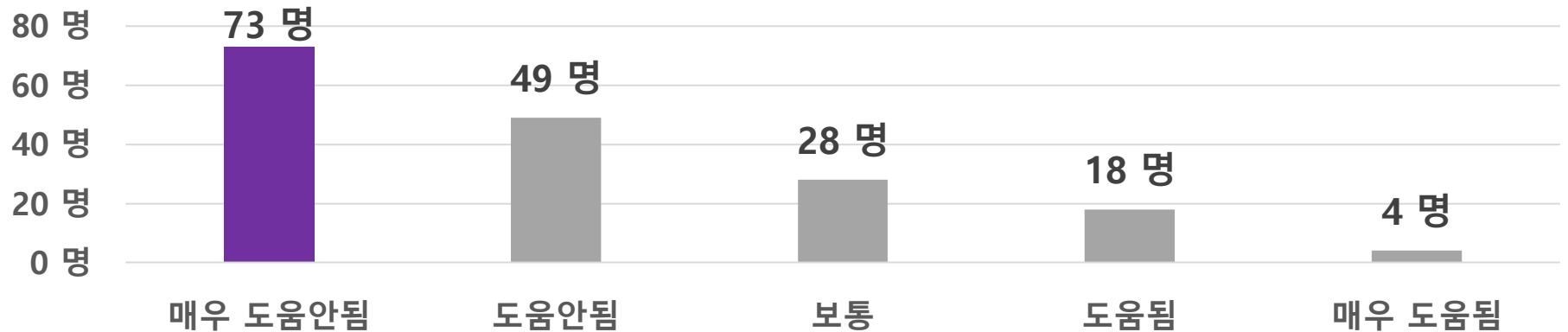
아니다 34%

1. 코로나-19

- 코로나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탈 시스템에 건강상태 자가진단(일 2회 체온체크)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진단이 코로나 안전을 위해 도움 된다고 생각하나요?



- (작성 경험자만 응답)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 3회 환기 일지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지 작성이 코로나 안전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단순한 일지 기록 및 탁상공론적 행정 대응은 실질적인 대응에 효과가 없다 (11명)**

- 환기도 잘 하고 어차피 랩실에 갇혀 있으니 접촉자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환기 체크리스트는 정말 종이 낭비입니다. 각 랩실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권했으면 합니다
- 연구실 내 분위기를, 항상 마스크를 끼고 환기 자주하도록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페널티 없이 단순히 일지를 적으라는 건, 외부에 '우리 잘 관리하고 있다'를 어필하는 용도로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진 않을 것 같네요.
- 너무 행정 중심적이다. 일지를 작성한다고 예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말 확실히 예방하고 싶다면, 학교 교문에서부터 신원조회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명)
- 확진자 발생했을 때 학교측의 책임회피를 위한 탁상 행정은 그만 해주세요 (3명)

교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요청하며, 방역 수칙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8명)**

- 건물 입구에 비대면 온도계를 배치해주세요. 연구실 입구에서 비접촉 온도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편합니다.
- 원내 출입문 손잡이에 향균 필름을 부착해주세요.
- 학생식당처럼 학생증과 온도계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 가장 최선의 예방인 마스크를 학생들이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자주 무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명)
- 비대면 강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
- 개인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행사는 모두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활동은 타 기관 연구자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zoom 등 화상 미팅으로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몇몇 대면행사들이 진행되면서 확진자와의 접촉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최소한 교외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승인되었으면 합니다.

교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한 긴급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6명)**

- 유증상자에 대한 상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내 동선)
  - 12월 9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 기숙사를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게 답답하다
  - 학생보다 느린 속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확진자 안내 대처 속도가 느림
  - 확진자 관련 동선이 좀더 자세히 나타났으면 합니다
- 백신접종완료자들에게는 방역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교내 코로나 대응 전략상 급하게 학생들의 일상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공휴일 하루 전에 타지 방문 이후 PCR 검사 미이행시 기숙사 퇴사 공지를 하는 등 학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절차 고지가 빈번함.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경우 무료 PCR 검사를 받을 때 귀원에 문제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함. 또한 문자 고지인 검사 결과를 꼭 인쇄하여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분도 부당한 행정 업무로 여겨짐.

## 교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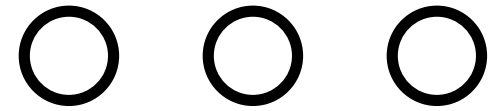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코로나 초기 창궐 시 개인적인 경로로 코로나 감염되면 퇴학 시킨다는 총장의 엄포가 있었음. 하지만 정작 걸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교직원이나 가족 들이 많음. 학생들에게만 위협적으로 협박하는 태도가 불합리함. 안전 팀에서 문자 오는 것도 돌아다니지 말고 증상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는 말만 반복함. 정작 방역 및 접촉자 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한 건에 대한 건 공유하지 않고 완료하였는지 정도로만 축소해서 제공함.
- 너무 비상식적인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됨. 구체적으로, 교내와 외부의 분리를 통해 코로나를 방지하려고 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교내 시설 운영을 막아선 안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일전에 르네상스 폐쇄이후, 첨단 술집에서 확진자의 밀접촉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 만약, 밀접촉자가 르네상스를 이용했다면 없었을 상황임. 또한, 타지역 방문 후 코로나 검사의 시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물론 안전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광주도 일 평균 수십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광주지역 또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더불어,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듦. 공사등을 위해 외부 인력이 건물을 출입하는데, 발열 체크 라던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제라던가 본적이 없음.

## 교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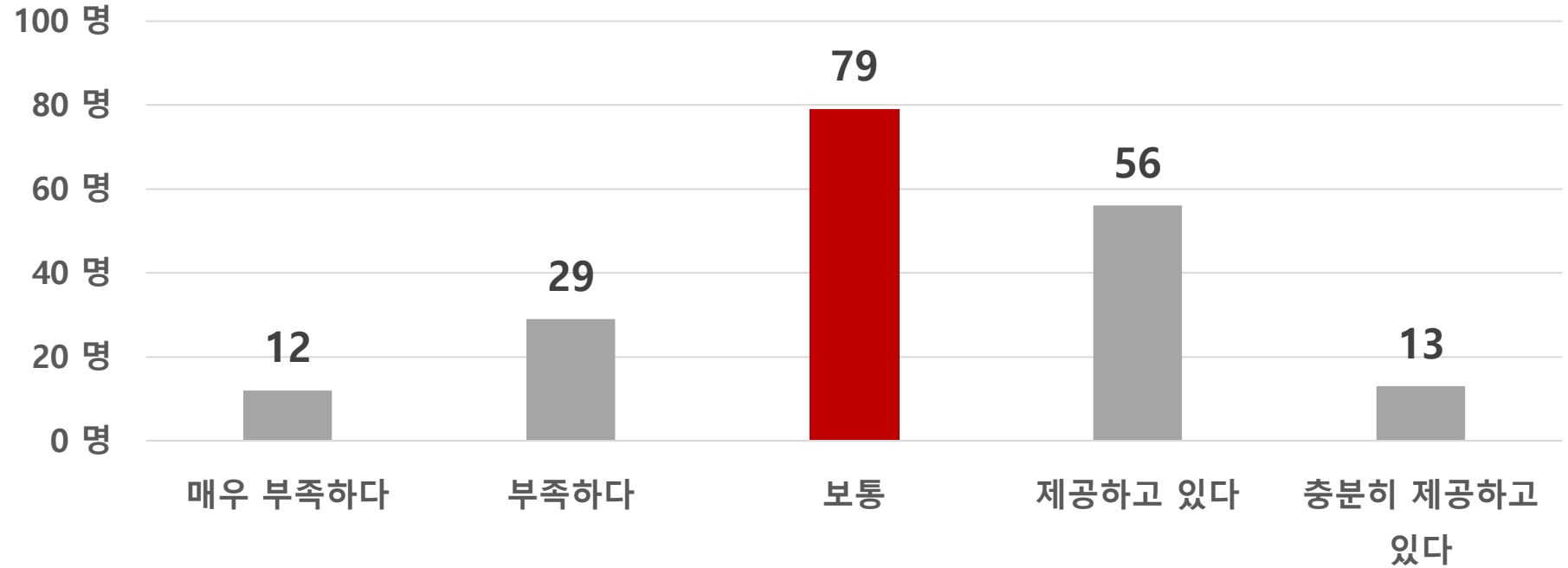
- 정부 가이드라인 정도만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함.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음. 비현실적으로 시행되는 대응책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음. 학교 차원에서 책임 회피, 책임 전가 대응책으로 밖에 안 보임.
- 예전에 시행했던 기숙사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광주 시외 방문 시 코로나 PCR 검사 의무는 과도한 금지였음.
- 학생들이 당연히 조심해서 다니는 게 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살 수 있게 한다던 지, 코로나 블루로 인한 특별 상담소를 만든다던 지 학교가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의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혹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집 가거나 타지 이동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교직원들의 해외 출입국시 제제가 왜 학생들과 달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단순히 기숙사 거주자의 유무로만 기준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근에는 아니지만 이전에 해외에서 온 교수와 학생이 학생만 격리를 하고 교수는 격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했다.



## 10. 기타 사항

교육, 소프트웨어, 체육시설 지원 등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 원에서 양질의 강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강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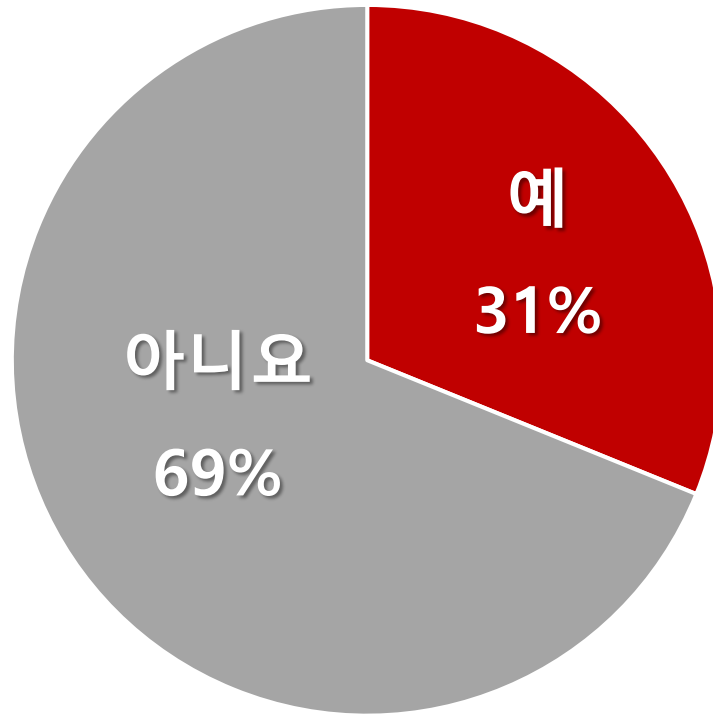
2. 체육시설 운영

교육 및 LMS시스템 관련 의견이 있으면 입력해 주십시오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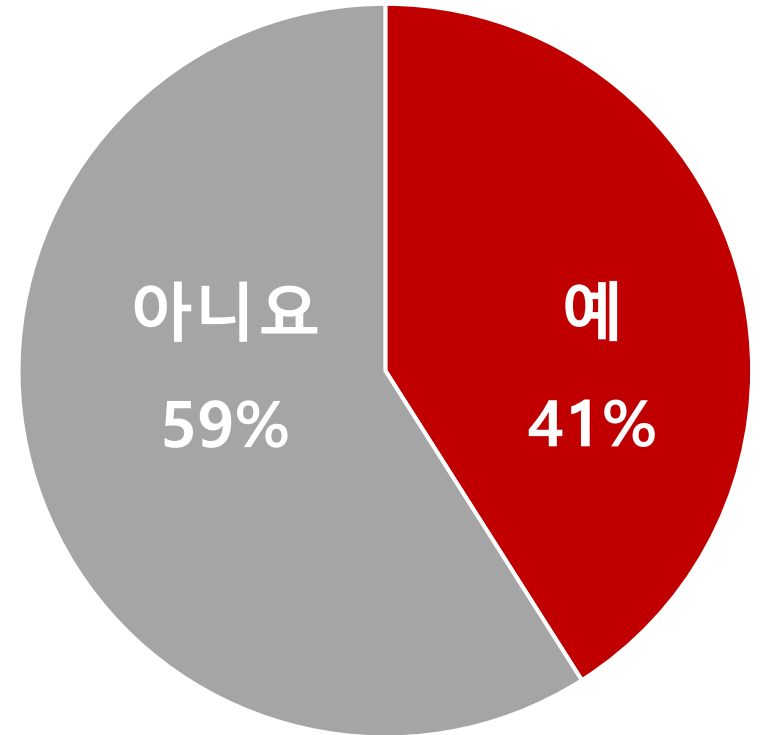
- **수업의 다양성 및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강의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피드백이 전달되어야 한다 (6명)**
  - 수업 질이 낮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님들께 개선할 만한 피드백이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실제 수업 교재의 숫자 부족
  - 대부분의 나이든 교수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오래전에 녹화해 둔 동영상시청으로 대체함. 강의 계획서에 제시한 대로 과제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 과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음.
  - 강의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가야함.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수들도 평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음.
  - 대학원 수업의 경우 너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수업이 많아서, 나의 연구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과목이 많지 않다.
  - 인문 사회과목 포함하여 강의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 저녁시간, 주말 등에도 강의시간을 자유롭게 개설해 주면 좋겠습니다
- **LMS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8명)**
  - 서버가 불안정하고 오래되었으며, 가독성이 좋지 않음 (6명)
  - 교수님들께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 원내 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헬스장, 풋살장,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농구장 등)



- ['예'로 응답한 경우] 체육시설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하여 운영 시간 제한이 불편하다 (20명)**

- 예약을 하거나 사용하기에 오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아리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연구실 몇몇개의 친목용이고, 시설도 그 사람들 위주로 사용되는 게 많음.
-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간대가 오전 10시 부터 9시까지라 너무 연구시간과 너무 겹친다. 오전 6시 ~ 12시 그리고 오후 4시 ~ 12시 이런 식으로 하면 매우 좋을 듯 하다.
- 24시간 개장이 필요하다 (2명)
- 2학생회관 헬스장의 운영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취미 시간이 매우 적고 학교 밖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좋은 환경의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보통 10-11시에 퇴근합니다. 2학 헬스장이 1시나 2시까지 운영되어 늦은 시간 퇴근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변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수영장도 다 개방된 상태인데, 왜 학교 수영장은 개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도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요가의 경우 시간이 매주 제한적이고 사람이 너무 많다

체육시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른다 혹은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유사한 의견끼리 정리하여 인원을 표기하였음)

- **체육기구가 낙후되거나 다양하지 못하고, 유지 보수 및 개선이 필요하다 (14명)**
  - 사용 방법에 대한 공지가 없음.
- 원외 시설 이용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 헬스장 전문 트레이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관 내 충분한 시설 관리 및 확충이 필요하다 (13명)**

- 생활관 내 학기별 청소(이번에 입학할 때 방이 너무 더러웠음) (2명)
- 가격은 낮지만 충분한 관리가 필요, 사감선생님 존재 이유 모르겠음, 룸메 매칭 시스템 필요
- 신청 희망 하에 화장실 청소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5년 이상 묵은 때를 어떻게 청소하라는 건지....
- 층마다 건조기 및 세탁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2명)
-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와 관리 필요 (수업 문제 포함) (3명)
- 기숙사 내 가구 노후 문제 해결 (2명)
- 기숙사 내 식사공간 필요
- 옷장크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 1인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 **생활관비의 조정이 필요하다 (4명)**

- 생활관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함 (3명)
- 매해 너무 인상율이 부담스럽습니다. 기혼자 아파트와 신관 생활관은 규모가 다른데 왜 비용은 비슷한가요?

- **생활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4명)**

  - 학부 기숙사에 비해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 노후화된 생활관실부터 차근차근히 개선, 1년에 1회정도는 개선사항 설문조사 하면 좋겠다
  - 너무 습하고 계절에 따라 관리가 힘들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분리수거 및 흡연 등에 관한 불편함 초래)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4명)**

  - 학생들이 분리수거 제대로 하도록 지도해주세요. (페널티 부과하는 아이디어 제시됨) (2명)
  - 담배꽂초 바닥에 안 버리게 하고, 실내에서 전자담배 냄새 안 나게해주세요
  - 생활관 내에 더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 신고로 내쫓았으면 한다.
- **생활관 시스템 및 사감 선생님의 불친절한 사례가 있음 (2명)**

  - 문의를 하거나 증빙 서류 제출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숨 쉬고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있다. 학생의 요청을 귀찮아 하신다. 업무 과중을 이해는 하지만 간혹 선을 넘으시는 경우가 있다
  - 새로운 룸메이트 입사 시, 며칠 전에 미리 공지 필요(게시판 등 제외 직접적인 연락). 늘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방에 있거나, 부재 중일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당황한 적이 많음. 고질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 대학원 기숙사 1-7동 거주 중입니다. 옆 방 문 닫히는 소음과 같은 층에 있는 세탁실 소음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생활관 호실의 문이 닫힐 때 큰 소음이 나지 않도록 도어 클로저를 점검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또, 같은 층에 있는 세탁실 입구에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여 세탁기 소음이 복도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1층 외부에 흡연부스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흡연 부스를 통해서 흡연할 수 있는 지정 구역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관 2주 있다가 나왔습니다.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여기서 대대적인 보수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살기도 어려운 기숙사를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결국 한 달에 40만원이나 내면서 학교 외부에서 거주 중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본 그 어느 기숙사보다 worst에 해당합니다

- **Adobe 라이선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1명)**
- **MATLAB 라이선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12명)**
  - 건물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함 (라이즈 건물)
  - Matlab같은 경우 선배님(이미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들이 모두 라이선스로 다운을 받아서 더 이상 다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 **연구활동에 필요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며, 종류가 적음 (9명)**
  - 종류가 너무 없으며, 없어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이유 및 재개 요청 (2명)
  - 윈도우용 프로그램만 다운받을 수 있고, 맥은 다운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 사용이 불가함 (2명)
  - 원내 구성원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지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빈도, 중요도,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명)
  -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SolidWorks, CATIA) 및 기타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365, Prism GraphPad, Papers 등) (4명)
  - 지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copy수가 부족하여 원활히 쓰기 어려움.

- **조금 더 많은 기기를 도입하고 홍보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홍보가 필요함. (8명)**
  - 특정 학과 특성에 편향된 장비가 아닌 다양하게 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새로 도입할 기기를 선정할 때 학생도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지스트 학과에 퍼져 있는 분석 장비에 대해서 중앙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내에서 공용 실험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운영해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함 (2명)
  -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학원에서 다양한 장비에 대한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비 교육 확대와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2명)
  - 초저온 전자현미경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 6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장비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 (6명)**
  - 센터 직원의 불친절
  - 장비보다도 오퍼레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 기기나 시설은 매우 만족하나 담당 선생님들의 전문성에는 약간 불만족 (2명)
  - 중앙연구기기센터가 아닌 공동활용장비의 경우 장비 담당자 업데이트를 꾸준히 했으면 함.



- **장비의 사용료에 대한 원내 구성원의 혜택이 주어지거나 저렴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음 (4명)**
  - 타 기관 장비 사용료와 비교한 후 원내 구성원이 이용할 시 저렴하게 했으면 함  
 (타기관 장비 사용료가 저렴한 게 많음).
- 용기원 학생입니다. 용기원 서버실이 일반 작은 호실 한 칸에 마련되어 있어 불편합니다. 다산빌딩 설계 자체가 서버실을 충분한 크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호실 또는 건물에 제대로 된 서버실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현재 세계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원내 장비 관리가 주먹구구식에 개판으로 운영되다가 중앙연구기기센터가 지어지면서 그나마 나아진 것 입니다. 중앙기기 연구센터 내에 연구직 중에 정규직이 한 명도 없고, 직원들에게 연구 외 업무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중앙연구기기센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많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GIST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개별 연구실 수준에서는 좋은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전남대학교만도 못해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 대학원생 대우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영원히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할꺼면 정말로 적극반영한다면 많이들 하겠죠. 그 전에도 했고 한 두번한 거 아닌데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 대우를 석사의 경우 학부 후 취직연구원, 박사의 경우 석사후 취직 연구원의 대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부분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낸 사람은 대학원생이 아니라 교직원들이기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투정이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거 다 알고있고,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는 학생들이 교수가 되고, 지금 교수들이 모두 물러나는 그 시점이 변화가능한 유일한 기회일 테지만, 교수가 되면 대부분 똑같이 되더라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정확히 정해주는 그 시점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위한 일을 진행해주십시오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 조사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개선되는 것은 보이지 않네요 적어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거나 어떤 점들이 변경 되었다는 summery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개선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설문을 참여하면서 실태 조사이기 보다 연구실의 부정적인 말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설문 같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면 이미 객관성이 많이 무너진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환경이지만 학생 본인이 연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연구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등 학생 본인의 역량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학원생도 사람입니다. 지도교수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교류가 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searcher도 중요하지만, technician도 연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연구 장비 도입 및 학력에 상관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역량을 꼼꼼히 확인 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관련 부분이랑 특허출원에 관해 연구책임자가 챙겨가는 몫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직원 평가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대학원생 4대 보험 의무화
- 폭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 THE END

## 문의 및 건의사항

대학원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ggsuadmin.dothome.co.kr/>

GIST 대학원총학생회